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1 | No.148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2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8
(4) 일반기계	29
(5) 철강	31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5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9
(12) 디스플레이	40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9
(1) 생산	49
(2) 고용	50
(3) 수출	52
2. 지역별 동향	53
(1) 수도권	53
(2) 충청권	55
(3) 호남권	57
(4) 대경권	59
(5) 동남권	60
(6) 강원·제주권	62

V. 산업 포커스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와 대응방안	64
---------------------------	----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2. 1 | No.148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2년 1월 28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주)프리비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11월 실물지표들이 전월에 이어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연준은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 완료,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을 시사
 - 연준은 현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보면서 2022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매해 2~3차례의 금리 인상(2024년 말 2.1%)을 예상
- 일본은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도 생산이 3개월 만에 증가하고, 소비 역시 소폭의 증가세로 전환
 - 일본은행(BOJ)은 대기업 자금지원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한을 2022년 9월로 연장하는 결정을 단행(12월 17일)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도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2022년 3월에 종료하기로 결정(12월 16일)
- 중국은 11월 생산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수요 지표들(소비·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2.3%)
 - 인민은행은 지난 12월 초 기준율 0.5%포인트 인하를 발표(12월 6일)하고, 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20개월 만에 인하(12월 20일)

주요국의 실물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미국	실질GDP ¹⁾	2.3	-3.4	6.3	6.7	2.0				
	산업생산	-0.8	-7.2	1.0	1.6	0.9	-0.1	-1.0	1.7	0.5
	소매판매	3.3	0.3	8.0	6.5	-0.5	1.2	0.7	1.8	0.3
	무역수지 ²⁾	-576.3	-676.7	-206.1	-207.1	-225.0	-73.2	-81.4	-67.2	-80.2
일본	실질GDP	-0.2	-4.5	-0.7	0.5	-0.9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3.6	-5.4	1.8	-
	소매판매	0.1	-3.5	0.4	-2.1	1.2	-4.0	2.8	1.0	-
	무역수지 ²⁾	-1,668	563	542	434	-276	-643	-69	-955	-
유로	실질GDP	1.4	-6.5	-0.2	2.2	2.2				
	산업생산	-1.4	-8.4	1.1	0.0	-0.2	-1.7	-0.2	1.1	-
	소매판매	2.4	-1.1	-1.2	3.9	0.8	0.9	-0.4	0.2	-
	무역수지 ²⁾	222.7	234.5	68.9	37.0	28.3	9.2	6.1	2.4	-
중국 ³⁾	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5.3	3.1	3.5	3.8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2.5	4.4	4.9	3.9
	수출(달러화)	0.5	3.6	48.7	30.3	24.4	25.6	28.1	27.1	22.0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연초 달러화 강보합 및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12월 중 연준의 통화긴축 가속 가능성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올 들어서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강보합세
 - 엔/달러 환율은 연초 한때 116엔을 돌파(1월 4일)하면서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1										2022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0일	
엔/달러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5.08	115.20	
달러/유로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70	1.1326	
미 국채 (10년 만기)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51	1.76	
WTI유	63.6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7.0	78.2	
두바이유	64.5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6.5	80.2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12월 중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와 달러화의 약보합세,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전월의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올 들어서도 OPEC+의 증산 규모 유지와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 등으로 상승
 - WTI유와 두바이유는 12월 중 16.3%와 7.7% 상승, 1월 초 1.6%와 4.8%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11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3.8%로 9월 이후 줄곧 3%대에 머물러

- 11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8%로 9월 3.1%, 10월 3.5%에 이어 3%대로 경기 둔화 확인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6.2%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9%
- 11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민영기업의 증가율이 소폭 개선된 반면, 국유기업과 주식제기업의 증가율은 소폭 하락
 - 국유기업은 전년동월비 3.6%, 민영기업은 3.9%, 주식제기업은 4.5% 수준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9월	10월	11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3.1	3.5	3.8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1.2	0.3	2.8
	화학섬유	12.5	-1.0	3.4	17.1	-2.0	-4.9	-2.7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9.3	4.0	2.7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4.7	-3.9	0.0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4.1	-1.1	-1.2
철강	선철	5.3	2.2	4.3	4.0	-16.1	-19.4	-16.6
	조강	8.3	1.4	5.2	11.8	-21.2	-23.3	-22.0
	강재	9.8	2.7	7.7	13.9	-14.8	-14.9	-14.7
비철금속		3.5	2.9	5.5	11.0	-1.6	-2.6	-0.7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2.1	4.8	2.1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23.5	-6.7	-11.1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0.7	11.5	-14.8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7.9	-5.7	1.9
자동차		-8.0	-16.5	-1.4	26.4	-13.7	-8.3	-7.1
조선		9.3	-10.4	-8.2	19.1	-27.3	41.1	9.6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12.2	-8.7	-1.5
	냉장고	8.1	-6.9	8.4	18.8	-18.5	-13.5	-10.3
	에어컨	6.5	-16.4	-8.3	21.0	-6.9	6.0	3.7
	컬러TV	-2.9	-2.5	4.7	5.6	-14.6	-5.5	-7.5
	컴퓨터	6.9	5.2	16.0	40.6	8.3	-2.1	7.2
	반도체	7.2	16.4	16.2	48.1	21.4	22.2	11.9
	휴대폰	-6.0	-13.3	-9.5	21.1	-5.2	-0.9	3.9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2.0	2.7	0.2
	여객운수	-1.9	-54.8	-45.1	11.1	-30.2	-32.2	-41.1
	우편 ³⁾	31.5	22.4	29.7	34.4	17.7	18.7	16.7
	통신 ³⁾	62.9	28.3	28.1	28.3	31.6	28.3	25.0
	소매업	7.9	-8.7	-2.3	20.6	4.5	5.2	4.8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3.1	2.0	-2.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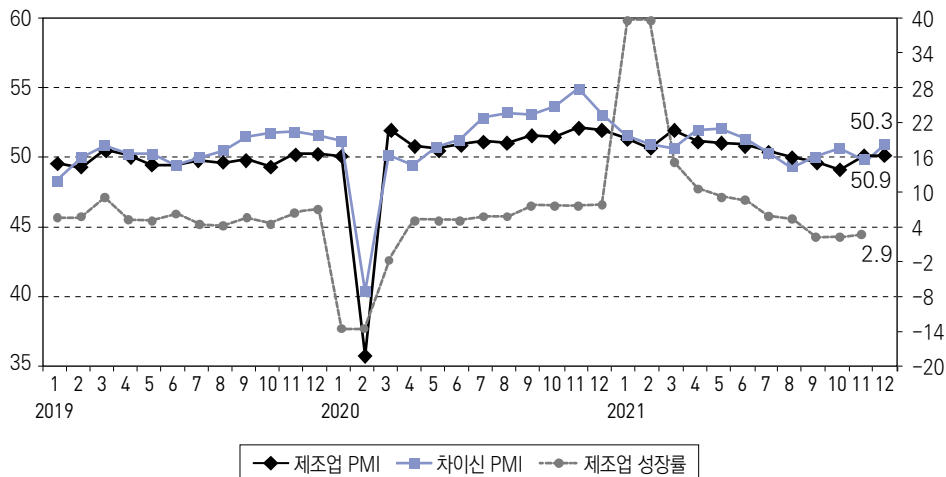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11월의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9월부터 철강과 기계 및 자동차가 크게 감소
 - 섬유업종은 화학섬유가 9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2.7%)
 - 화학업종은 9월부터 에틸렌은 증가세를 유지(11월 2.7%)한 반면, 플라스틱제품은 지속 감소(11월, -1.2%)
 - 철강업종은 선철(-16.6%), 조강(-22.0%), 강재(-14.7%) 등 모든 품목에서 9월부터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것으로 판단
 - 비철금속은 9월부터 감소(11월, -0.7%)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2.1%)와 발전설비(1.9%)가 소폭의 증가를 기록한 반면, 대기오염방지설비는 11월 큰 폭의 감소(-14.8%)가 있었고, 소형 트랙터는 9월부터 지속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11월, -11.1%)
 - 자동차는 상반기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가 하반기 들어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를 기록 중(11월, -7.1%)
 - 조선업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9.6%의 증가세
 - 전자업종은 반도체(11.9%)와 컴퓨터(7.2%), 휴대폰(3.9%), 에어컨(3.7%)이 증가한 반면, 세탁기(-1.5%), 컬러TV(-7.5%), 냉장고(-10.3%)는 감소
-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11월에도 여객운수가 전년동월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우편과 통신은 증가세 유지
 - 화물운수(0.2%)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41.1%)는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우편과 통신은 각각 16.7%, 25.0%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소매업은 4.8% 증가하고, 음식숙박업은 2.7% 감소
- 12월 제조업 관방구매관리자지수 50.3으로 경기 전망 불투명 여전
- 12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50.3으로 여전히 불투명한 경기 전망
 - 생산지수는 0.6포인트 하락한 51.4

- 신규주문지수는 0.3포인트 상승한 49.7
- 부품재고지수는 1.5포인트 상승한 49.2로 비교적 크게 개선
- 종업원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한 49.1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0.1포인트 상승한 48.3
- 제조업 PMI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임계치 이상으로 뚜렷하게 개선된 반면, 소형기업은 임계치 밑으로 크게 하락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1.3으로 뚜렷한 개선
 - 중형기업은 0.1포인트 상승한 51.3
 - 소형기업은 2.0포인트 하락한 46.5
- 12월 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50.9로 7월 이후 가장 뚜렷한 회복세
 - 최근 1년 중 수요 증가가 견인하여 생산의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실현
 - 신규 업무가 아주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팬데믹과 경기 위축의 어려움으로 물류난을 겪으면서 해외수요도 불안한 상황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최근 빠른 경기 회복에 따라 지연된 업무 처리에 충분하지 못한 노동력으로 불완전 처리가 증가
- 기업들은 자발적 퇴직자와 은퇴자의 증가로 인력난을 호소
- 비록 구매 증가로 총매출이 연말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요소와 완제품의 재고는 소폭 증가
- 물류공급망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배송 지연의 어려움 계속
- 사업 전망은 낙관적이나 최근 20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

(2) 미국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5.1% 증가

- 11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증가로 5.1%의 증가를 기록, 8월 이후 4~5%대 증가가 지속
- 항공우주와 정유가 각각 전년동월비 12.9%와 1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을 견인
 - 그 외에도 1차 금속(8.5%), 기계(8.2%), 반도체·전자부품(7.7%), 화학(7.0%) 등에서 제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
- 자동차·부품은 3분기 실적 악화가 계속되며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11월에 2.3% 감소를 기록
 - 3분기에 들어 전년동월비 생산 실적은 -9.3%(7월), -9.0%(8월), -14.4%(9월)로 생산 악화가 지속되어 왔음.
 - 11월도 전년동월비 생산은 부진하였으나 10월(-5.2%)에 이어 감소폭이 개선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제조업 전체	-6.4	-2.4	-0.1	17.6	6.1	4.8	4.6	5.1
식품	-2.6	-1.5	-0.5	7.5	1.6	1.2	0.8	1.3
제지	-4.3	-3.6	-5.8	3.8	4.9	3.6	0.6	1.4
정유	-13.0	-11.6	-7.5	23.7	12.5	12.0	13.2	12.7
화학	-2.6	0.0	-3.4	10.5	7.7	6.0	6.5	7.0
플라스틱·고무	-7.6	-2.0	-0.8	18.4	5.3	4.4	3.7	6.1
1차 금속	-13.4	-6.3	-3.5	33.1	17.7	11.8	10.8	8.5
금속제품	-7.6	-5.8	-3.5	9.4	5.9	4.5	5.3	5.0
기계	-6.1	-0.4	3.3	23.1	10.7	8.9	6.9	8.2
컴퓨터·주변기기	14.1	19.7	14.2	21.1	9.2	7.1	6.5	6.5
통신기기	12.4	13.0	9.9	10.7	8.4	6.5	4.4	3.2
반도체·전자부품	3.7	5.8	10.6	16.1	10.5	9.2	7.5	7.7
자동차·부품	-15.7	2.4	4.8	85.9	-10.9	-14.4	-5.2	-2.3
항공우주	-20.1	-17.2	8.5	37.5	17.0	13.2	12.0	12.9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3) 일본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5.4% 증가

- 11월 제조업 생산은 주요 업종 대부분에서 전년동월비 증가하며 2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수송기기와 전기·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하며 지난달(-4.1%)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
 - 특히 생산기계는 2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을 견인해온 업종으로 11월도 27.3%의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전자부품·기기도 15.2% 증가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제조업 전체	-10.3	-3.5	-1.1	19.9	5.7	-2.3	-4.1	5.4
강철·비철금속	-14.6	-4.3	-0.4	34.4	19.9	10.5	1.9	6.9
금속제품	-11.5	-6.0	-0.6	15.9	5.0	-0.8	-6.2	1.3
생산기계	-10.3	-1.3	11.3	25.6	32.8	27.4	25.3	27.3
일반용·업무용 기계	-12.1	-3.5	-1.2	22.9	19.2	18.2	2.5	6.0
전자부품·기기	1.4	5.2	9.7	23.8	17.2	8.9	9.2	15.2
전기·정보통신기기	-9.7	-0.6	5.1	21.8	5.8	-0.4	-6.9	-1.6
수송기기	-17.4	-1.5	-7.1	54.5	-13.2	-38.0	-32.9	-4.3
요업·토석제품	-8.5	-4.7	-3.9	13.4	8.7	4.4	-2.5	1.0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10.7	-5.4	9.3	6.8	7.1	4.3	7.5
석탄·석유제품	-15.5	-12.6	-11.4	0.9	7.6	10.9	8.8	4.1
플라스틱제품	-6.3	-1.0	-0.7	14.8	1.7	-7.1	-8.9	2.5
펄프·종이·가공품	-9.7	-5.8	-5.0	9.2	7.5	2.7	2.2	1.3
식품·담배	-3.0	-3.6	-2.9	0.7	-2.2	-2.8	-1.3	-
기타 제조업	-13.2	-8.7	-5.3	14.9	10.3	6.8	1.5	5.1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그 외에도 화학공업(7.5%), 강철·비철금속(6.9%), 일반용·업무용 기계(6.0%) 등이 호조
- 특히 지난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수송기기, 플라스틱제품, 금속제품 등이 크게 개선
 - 수송기기는 4.3%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지난 9월(-38.0%)과 10월(-32.9%) 실적 대비 크게 개선된 수치
 - 플라스틱제품도 9월과 10월 각각 7.1%, 8.9%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2.5% 증가로 반등
 - 금속제품도 10월 6.2% 감소에서 1.3% 증가로 전환하면서 전체 제조업 실적 개선에 기여

(4) 유로존¹⁾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0% 감소

- 11월 제조업의 생산은 자동차, 통신기기 및 고무·플라스틱 등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월비 2.0% 감소
 -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26.3%) 및 부품(-13.5%) 부문에서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하며 20.9% 감소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감율, %

	2020	2021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제조업 전체	-9.1	5.1	25.2	6.9	4.5	0.5	-2.0
식음료	-2.4	-1.0	7.2	4.3	3.1	3.6	8.0
섬유	-12.8	2.2	33.7	6.0	4.4	2.2	3.5
정유	-10.1	-8.4	6.6	6.9	9.4	10.5	7.9
화학	-2.5	3.0	13.3	6.1	4.5	0.8	1.5
고무·플라스틱	-8.6	5.4	30.3	3.1	0.3	-2.1	-2.2
1차 금속	-13.1	3.9	35.3	9.1	3.9	3.1	1.6
조립금속	-12.0	6.2	33.7	7.9	4.7	2.4	2.1
기계	-12.7	4.2	25.2	13.2	11.5	9.5	7.9
통신기기	-14.2	9.4	26.5	4.9	6.4	-3.4	-4.0
전자부품	1.8	6.7	22.2	11.5	8.4	4.5	4.6
자동차	-23.8	-0.9	61.5	-20.3	-27.0	-25.0	-20.9
조선	-8.1	6.7	25.9	0.6	4.3	7.6	-0.1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 통신기기는 4.0% 감소하였고, 고무·플라스틱 역시 고무의 부진(-7.1%)으로 인해 2.2% 감소
- 반면, 식음료의 경우 빵류 및 유사식품(27.4%), 과일 및 채소가공업(20.5%),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19.5%) 등의 호조로 인해 8.0% 증가
- 정유는 코크스 및 정유제품 모두 증가하며 7.9% 증가
- 기계는 특수목적용 기계(10.2%), 가공공작 기계(7.9%),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5.3%) 등의 확대에 의해 7.9% 증가

II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11월 전산업 생산, 전월비 3.2% 증가, 소비 감소·투자 증가

- 11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5.1%)하고, 서비스업도 증가로 전환(2.0%)하면서 전월비 3.2% 증가
 - 광공업이 자동차(전월비 11.3%)와 반도체(4.5%) 등에서 동반 증가한 영향으로 5.1%나 증가하고, 서비스업도 금융·보험(3.0%)과 숙박·음식(5.6%)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2.0% 증가
 -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0.4%)가 증가한 반면에, 의복 등 준내구재(-5.7%)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3.2%)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1.9%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10.1%)와 운송장비(13.6%)가 동반 증가하여 10.9%나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13.3%) 공사 실적 감소에도 건축(8.1%)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2.4%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구성지표가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6%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수출입물가비율, 재고순환지표 등은 하락했으나, 장단기 금리차,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해 보합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2.2	-0.9*	1.9* (1.7*)	6.0* (0.8*)	4.0*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1.2* (1.2*)	3.7* (3.6*)	3.3*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2.4* (6.1*)	12.8* (1.1*)	4.2* (-2.4*)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8* (1.3*)	-1.2* (-2.3*)	-1.2* (-3.5*)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2.7 (1.7)	7.2 (0.4)	3.9 (0.5)	5.9 (-0.1)	1.4 (1.1)	4.8* (-1.9*)	5.3* (3.2*)
광공업생산지수	0.4	-0.4	4.4 (3.4)	12.7 (-1.2)	5.1 (0.5)	9.9 (-0.5)	-1.9 (-1.1)	4.5* (-2.9*)	5.9* (5.1*)
제조업생산지수	0.5	-0.3	4.4 (3.4)	13.2 (-1.2)	5.1 (0.4)	10.4 (-0.3)	-2.0 (-1.3)	4.6* (-2.9*)	6.2* (5.3*)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2 (0.7)	5.7 (1.7)	3.9 (0.9)	4.2 (-0.8)	3.4 (1.4)	5.1* (-0.4*)	5.3* (2.0*)
소매판매액지수	2.4	-0.2	6.4 (1.7)	4.4 (2.7)	5.0 (0.1)	3.8 (-0.8)	3.6 (2.4)	7.4* (0.1*)	4.6* (-1.9*)
설비투자지수	-5.7	6.0	11.9 (6.9)	12.7 (0.7)	5.8 (-2.5)	12.6 (-4.4)	-5.3 (-2.1)	3.0* (-5.0*)	9.2* (10.9*)
건설기성액	-2.3	-4.1	-7.2 (-3.6)	-5.3 (-2.4)	-6.1 (-1.8)	-0.1 (1.4)	-9.4 (2.3)	-0.1* (-1.2*)	-5.6* (2.4*)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0 100.3	112.3 98.8	114.4 99.7	116.6 101.2	117.1* 101.3*	117.1 101.3	117.2* 101.2*	117.1* 101.0*	117.7*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4.6 99.1	119.5 99.6	124.7 101.6	127.1 102.5	128.2* 102.4*	128.2 102.4	128.2* 102.1*	128.1* 101.7*	128.1* 101.3*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0% 증가

- 11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가 농림·어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제조업도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율이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도 하락(2.4% → 2.0%)
 - 제조업이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0.3% → 1.2%)
 - 농림·어업에서의 증가율이 전월보다 높아진 반면(1.3% → 2.1%), SOC·기타서비스업의 증가세는 현저히 둔화(3.0% → 2.2%)
 - 건설업은 소폭 증가(2.5% → 0.8%)에 그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율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1.7% → -3.7%)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산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648	27,603	27,683	27,741	27,795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0	1.9	2.5	2.4	2.0
농림·어업	4.1	3.6	-0.2	0.2	1.5	0.7	2.4	1.4	1.3	2.1
제조업	-1.8	-1.2	-0.6	0.1	-0.8	0.1	-1.7	-0.8	-0.3	1.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5	2.6	3.3	3.0	2.2
건설업	-0.7	-0.2	1.7	7.0	4.4	4.6	6.1	2.7	2.5	0.8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6.9	-2.4	-2.6	-3.5	-2.7	-1.5	-1.7	-3.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6.2	6.3	8.3	9.0	8.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5	0.9	-0.4	4.3	4.1	4.2	3.7	4.3	3.9	3.8
실업률(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3	2.8	3.0	3.2	3.1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에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2.7% → -6.3%, 2019년 6월 이후 최저치)된 영향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5% → 11.6%)를 비롯해서 교육서비스(6.1% → 5.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5.4% → 7.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1.4% → 1.8%)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체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3.9% → 3.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1%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03 물가

□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3.7% 상승

- 12월 소비자물가는 기타상품·서비스(전월비 -0.5%)와 오락 및 문화(-1.6%)를 제외하고 교통(2.0%), 통신(0.6%), 의류·신발(1.3%)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2% 상승(전년동월비 3.7%,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0.5	2.5	1.4 (1.3)	2.5 (0.5)	2.5 (0.7)	3.5 (1.0)	2.6 (0.2)	2.6 (0.5)	2.4 (0.4)	3.2 (0.2)	3.8 (0.5)	3.7 (0.2)
근원물가	0.7	1.8	1.3 (0.7)	1.5 (0.6)	1.9 (0.5)	2.6 (0.9)	1.8 (0.1)	1.9 (0.3)	2.0 (0.2)	2.8 (0.3)	2.4 (0.2)	2.7 (0.4)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 가계대출 증가 규모 축소, 1월 초(1월 3~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대출에서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2021년 10월 +10조 3,000억 원 → 2021년 11월 +9조 1,000억 원, 대기업 +6조 4,000억 원, 중소기업 +2조 7,000억 원)

-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 차입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증가세는 유지하는 모습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계절요인 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시설자금에 대한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 CP는 발행 규모가 전월에 비하여 확대되면서 순발행으로 전환된 모습이고, 회사채는 금리 변동성 확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 등으로 순상환으로 전환된 모습,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일부기업의 유상증자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발행 규모가 확대된 모습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021년 11월 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중	9월	10월	11월	
은행 원화대출 (대기업)	51.1	5.9	113.0	6.7	92.1	7.7	10.3	9.1	1,068.4
(중소기업)	51.2	5.1	88.5	7.0	82.8	7.4	8.0	6.4	887.4
〈개인사업자〉	23.9	2.6	45.7	3.9	35.9	3.5	2.6	2.7	421.9
	-0.2	0.8	24.5	-0.3	9.2	0.3	2.3	2.8	181.0
회사채순발행	16.4	-0.8	15.2	0.5	16.9	2.0	0.2	-0.2	-
CP 순발행	5.8	0.0	3.0	-1.2	7.2	-1.3	-1.0	0.7	35.7
주식발행	5.6	1.0	8.0	0.8	28.3	1.8	1.1	2.3	-
은행 가계대출	53.5	7.0	93.9	13.7	72.1	6.4	5.2	3.0	1,060.9
주택담보대출	40.1	4.9	62.0	6.2	55.0	5.6	4.7	2.4	776.9
기타 대출	13.5	2.1	32.0	7.4	16.9	0.8	0.5	0.5	282.9

자료: 한국은행.

- 11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지난달에 이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된 모습(2021년 10월 +5.2조 원 → 2021년 11월 +3.0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관련 자금수요의 둔화와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된 모습이며, 기타 대출은 금융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조치,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낮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 국고채(3년) 금리는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 및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영향과 정부의 추경 편성 추진 등으로 인한 적자국채 우려감 확대로 상당폭 상승한 모습(1월 3일 1.86% → 1월 10일 2.06%, 0.2%포인트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국내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와 연초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단행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한 여파 등으로 상당폭 상승한 모습(1월 3일 1,191.8원 → 1월 10일 1,201.5원, 9.7원 상승)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2022
	3/4	4/4	1/4	2/4	3/4	4/4	1월 10일
국고채(3년)	0.85	0.98	1.13	1.45	1.59	1.80	2.06
회사채(3년, AA-)	2.19	2.21	2.06	1.97	2.05	2.42	2.62
CD(91일)	0.63	0.66	0.75	0.68	1.04	1.29	1.30
CP(91일)	1.11	1.09	1.00	0.97	1.18	1.56	1.56
원/달러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88.8	1,201.5
원/100엔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0.2	1,039.8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05 수출입

□ 12월 수출 18.3%, 수입 37.4% 증가,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8.3% 증가한 607.4억 달러, 수입은 37.4% 증가한 613.2억 달러, 무역수지는 5.9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수출은 9개 주력품목*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부 증가하여 9개월째 증가세를 유지, 특히 중국, 미국, 아세안, EU 등 거대 경제권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 수입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차 상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
 - *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무선통신, 컴퓨터, 섬유, 가전
 - ** 원유 도입단가(83.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85.5%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0.3% 증가하면서 수입액은 86.2% 증가한 71억 달러를 기록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출	5,422 (-10.4)	5,128 (-5.4)	1,567 (42.1)	1,646 (26.5)	1,768 (24.6)	532 (34.7)	559 (16.9)	557 (24.2)	604 (32.0)	607 (18.3)
수입	5,033 (-6.0)	4,676 (-7.1)	1,492 (37.6)	1,569 (37.5)	1,725 (39.5)	516 (44.0)	516 (31.0)	538 (37.7)	574 (43.6)	613 (37.4)
무역수지	389	452	76	77	43	16	43	18	31	△5.9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2월 실적은 잠정치.

III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11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6.2%, 전월비 5.3%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8.8%), 금속가공(-7.7%), 자동차(-3.5%)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33.7%), 화학제품(7.0%), 기계장비(5.8%) 등의 업종에서 상당폭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비 6.2%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0.1%)와 중공업(7.0%)은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공업(2.5%)은 증가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의복 및 모피(-1.9%), 석유정제(-0.5%), 화학제품(-0.3%) 등의 업종이 감소하였지만, 자동차(11.3%), 기계장비(5.7%), 반도체(4.5%)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5.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은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식료품, 반도체,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는 0.6% 증가하고, 전월비는 0.1% 증가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5.2%로 전월보다 6.1%포인트 하락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가 증가(-3.9% → +1.8%,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로 전환되었고, 재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가중치 (2019)	2019	2020	2021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광공업(원자수)	10,000	106.7	106.3	113.7	111.8	110.0	113.9	118.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12.7	5.1	-1.9	4.5	5.9	5.1
제조업(원자수)	9,484.5	106.6	106.3	114.4	112.1	110.7	114.6	118.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13.2	5.1	-2.0	4.6	6.2	5.3
섬유	135.0	-5.9	-10.5	25.0	4.6	-7.5	0.2	5.5	8.1
화학	883.8	-1.3	-3.0	15.7	7.8	2.2	2.0	7.0	-0.3
철강	454.3	-2.2	-6.3	13.3	12.0	2.7	2.4	0.7	1.3
반도체	1,285.6	11.7	22.7	27.2	33.9	30.6	37.6	33.7	4.5
컴퓨터·주변장치	31.3	-8.0	-7.9	8.8	-6.5	-19.3	-12.0	2.6	13.0
통신·방송장비	131.5	-2.8	-11.3	41.7	18.7	12.3	9.1	9.0	11.8
의료·정밀·광학	218.0	-11.0	3.9	31.7	14.8	2.9	6.1	16.4	12.9
기계장비	819.2	-5.9	3.6	18.4	6.8	1.5	7.5	5.8	5.7
자동차	981.6	-0.5	-10.0	22.5	-8.7	-24.2	-13.3	-3.5	11.3
조선	206.3	17.6	8.6	-17.6	-22.7	-24.5	-13.7	-12.1	4.7
중공업	-	0.6	0.6	14.4	6.6	-0.7	5.5	7.0	5.1
경공업	-	-0.6	-4.0	7.4	-1.7	-8.2	-0.1	2.5	6.8
제조업ICT	-	4.8	11.9	19.9	20.9	17.3	21.6	20.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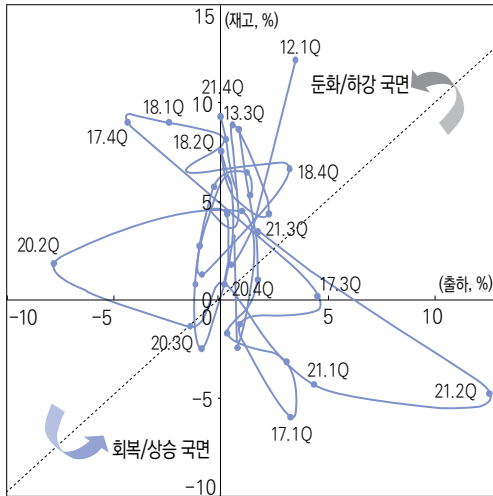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고의 증가폭(7.8% → 8.9%)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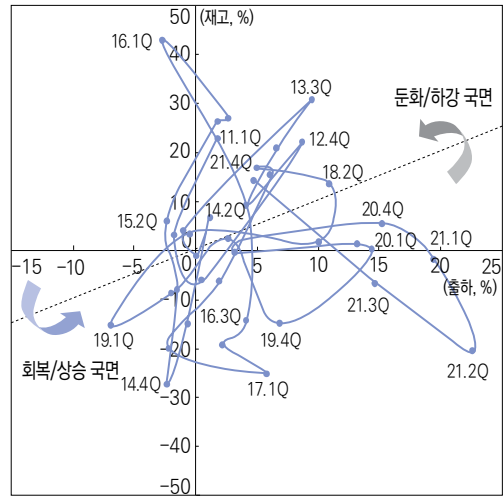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5.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주: 21.4Q는 2021년 10월~11월 평균.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주: 21.4Q는 2021년 10월~11월 평균.

□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수출 증가세를 기록

●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대부분 증가

- 반도체(35.1%), 컴퓨터(44.7%), 철강(49.0%)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두 자릿수 증가, 특히 석유제품(79.2%)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시현
- 다만, 자동차부품(-1.0%)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속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EU, 중국 등 해외 현지 공장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소폭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5.3	-13.1	74.8	6.5	4.9	16.8	-6.1	-4.7	3.3	17.3
자동차부품	-2.5	-17.3	123.1	14.8	-1.4	22.1	-5.1	-1.2	-2.2	-1.0
선박류	-5.2	-2.0	11.9	-1.4	22.9	38.9	-40.4	6.4	237.6	-49.0
일반기계	-1.9	-8.9	21.2	15.8	9.9	23.4	7.7	12.6	11.6	6.2
철강	-8.6	-14.5	50.4	45.2	47.8	53.4	41.6	48.5	45.8	49.0
석유화학	-14.8	-16.4	80.3	64.0	54.1	81.6	52.3	69.1	62.9	34.3
석유제품	-12.2	-40.6	112.6	71.6	113.6	54.5	84.8	147.6	123.9	79.2
섬유	-8.0	-13.3	46.1	9.9	16.3	19.0	-3.8	21.9	17.0	11.1
가전	-3.8	0.7	66.5	11.7	15.4	12.3	-4.1	13.8	21.0	11.8
무선통신기기	-17.6	-6.4	38.5	25.7	12.2	62.0	19.6	15.5	16.5	4.8
컴퓨터	-20.6	57.2	8.9	34.0	56.5	26.1	49.4	52.6	73.6	44.7
반도체	-25.9	5.6	29.7	36.3	34.6	42.6	28.2	28.8	40.1	35.1
디스플레이	-17.0	-12.2	36.0	25.2	5.8	23.7	17.3	5.3	10.4	2.0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2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부품 조달 문제가 계속되며 내수와 생산이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둔화

● 12월 내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전월비 둔화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지속되며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가 전년동월비 각각 3.0%와 23.9% 감소하며 자동차 내수 판매가 7.0% 감소
- 하지만, 국산차와 수입차 판매가 전월비 각각 4.4%와 27.1%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동월비 감소폭도 전월비 둔화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5	-10.0	11.2	22.5	-8.7	-24.2	-13.3	-3.5	-
	생산(전기비)	-	-	4.8	-6.7	-4.5	-9.7	-4.8	11.3	-
	출하	0.4	-9.6	11.5	23.3	-6.8	-21.1	-13.1	-4.7	-
	재고	2.1	9.2	2.5	3.3	0.3	0.3	-0.5	1.3	-
	가동률	3.6	-9.1	9.1	17.4	-12.3	-26.7	-16.3	-5.3	-
	내수판매동향	-1.6	5.7	11.2	-12.9	-15.0	-29.8	-21.4	-16.7	-7.0
교역 동향	수출	2.4	-14.5	21.7	88.3	9.2	-5.8	-3.6	1.6	10.5
	수입	-1.1	7.3	22.6	37.2	13.2	-13.7	-17.9	-20.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12월 수출은 전기차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10.5% 증가
 - 전기차가 129.7% 증가하며 완성차 전체도 17.3% 증가하였으며, 전기차를 제외한 완성차도 2.6% 소폭 증가
 - 자동차부품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해외 공장 가동률 정상화에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과 EU 지역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1.0% 감소
- 11월 생산은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감소
 - 생산 차질이 지속되며 생산과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3.5%와 4.7% 감소하였으며, 가동률도 5.3% 하락
 -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이 소폭 감소하며 전월비 생산은 11.3% 증가

(3) 조선

□ 생산지표 침체 완화, 수출은 큰 폭 감소

- 해상물동량은 작년 톤-마일 기준 약 3.8%의 높은 증가가 추정되고 컨테이너선 운임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선박 발주량도 높은 회복세가 유지되어 11월 말 누적 기준 전년동기비 104% 증가한 4,421만CGT를 기록
 - 발주량은 선가 지속 상승과 우량조선사의 생산슬롯 부족으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11월 말 누적 기준 전년동기비 109% 증가한 1,660만CGT를 수주하여 2014년 이후 최고의 수주량을 달성
 - 향후 건조 일감인 수주잔량은 11월 말 기준 약 2,899만CGT로 전월비 31만CGT가 증가했고, 연간 1,000만CGT를 건조한다고 가정하면 3년 가까운 매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
 - 11월 말 기준 누적 건조량은 전년동기비 18.0% 증가한 1,000만CGT로 나타나 중국 1,210만CGT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은 490만CGT로 3위였지만,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감소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6	8.6	-15.6	-17.6	-22.7	-24.5	-13.7	-12.1	-
	생산(전기비)	-	-	-14.3	-4.0	-2.7	6.5	0.5	4.7	-
	출하	20.0	7.2	-17.2	-18.1	-21.6	-23.5	-11.1	-9.1	-
	가동률	42.3	21.1	-9.2	-11.0	-19.3	-21.6	-11.1	-12.4	-
교역 동향	수출	-5.2	-2.0	28.3	11.9	-1.9	-40.4	6.4	237.6	-49.0
	수입	-9.7	44.4	-3.6	-5.6	40.1	-39.5	-36.2	5.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신조선가 지수는 11월 말 기준 154로 강세를 유지하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CCFI와 SCFI는 2021년 12월 24일에도 상승하여 고공행진을 지속한 반면,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2,217로 지속 하락
- 12월 수출은 다수의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이 있었지만, 전년동월비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없고 수출물량도 부족하여 크게 감소
 - 전년 동월에는 고가의 LNG운반선 외에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가 인도되면서 수출이 증가했으나, 이번 12월에는 일반 상선 중심으로 물량도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비 49.0% 감소
 - 연간으로는 수주회복기 물량의 인도와 고가의 해양플랜트 수출이 호조를 이루면서 전년비 16.4% 증가한 230억 달러를 기록
- 11월 수입은 유조선이 감소했지만, 벌크선의 대일본·대미국 반입이 증가했고 선박용 엔진도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
 - 벌크선 등 화물선의 대중국 반입과 탱커의 대일본 반입은 감소했지만, 화물선의 대일본·대미국 반입이 크게 증가했고, 선박용 디젤엔진의 수입이 전년동월비 35.6% 증가하면서 전체 수입은 5.1% 증가

(4) 일반기계

□ 생산 증가세 지속, 수출은 역대 최초 월간 50억 달러 실적 달성

- 11월 생산은 전방산업 수요 증가로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세를 지속하여 전년동월비, 전월비 각각 5.8%, 5.7% 증가
 - 내수출하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방산업의 경기 회복 지속으로 설비투자 와 국내 기계수주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여 양호한 증가세 유지
 - *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9월) -0.5 → (10월) -1.0 → (11월) 0.5
 -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9월) 3.9 → (10월) 7.1 → (11월) 10.9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9월) 14.2 → (10월) 17.0 → (11월) 25.0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9	3.6	9.4	18.4	6.8	1.5	7.5	5.8	-
	생산(전기비)	-	-	2.2	2.1	-1.8	0.6	-4.4	5.7	-
	출하	-5.1	1.6	8.0	19.3	6.4	0.1	8.6	5.1	-
	재고	2.6	8.4	14.1	19.3	14.1	14.1	18.3	10.2	-
	가동률	1.0	-6.6	-4.7	11.9	5.7	0.4	5.6	5.7	-
교역 동향	수출	-1.9	-8.9	-1.4	21.2	15.8	7.7	12.6	11.6	6.2
	수입	-3.6	-0.2	12.8	14.0	5.6	3.1	6.3	9.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가 증가(전월비 3.6%)했지만, 재고 감소(-4.0%)로 전월비 8.3% 포인트 하락

* 재고율(%): (2021년 9월) 106.0 → (10월) 112.3 → (11월) 104.0

- 가동률은 수출과 내수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7% 상승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2% 증가한 50억 2,900만 달러로 월간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초로 50억 달러 달성

- 수출 비중이 높은 가공·공작기계류와 건설기계의 글로벌 수요 호조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증가 및 역대 최초 50억 달러 월간 수출액 기록

- 대중국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중남미, 중동 등 자원수출국 수출이 전년동월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여 증가세 유지

* 12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중국(9.4, -5.3%), 미국(7.8, 17.9%), EU(5.6, 14.3%), 중남미(2.5, 10.2%), 중동(1.9, 20.6%)

- 11월 수입은 내수 성장세로 전년동월비 9.6% 증가한 27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

- 주요 품목별로는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230.4%), 금속공작기계(56.5%), 운반하역기계(84.9%), 건설광산기계(47.2%)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및 화학기계(-23.9%), 압연기 및 주조설비(-9.0%) 등은 감소세 지속

(5) 철강

□ 국내외 내수 증가세 지속, 수출은 가격요인으로 급증

- 11월 생산은 내수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비 0.7% 증가
 - 판재류 중 후판의 경우 조선용 수요 증가로 확대되었지만, 냉연강판 등 판재류 주요 품목의 경우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자동차 감산과 가격 하락 기대감에 따른 구매 지연 분위기로 인해 내수 및 생산이 감소
 - H형강 등 건설용 강재는 수요 감소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최적 생산 기조로 인하여 감소세를 기록
 - *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가율(물량 기준, 전년동월비): 중후판 17.1%, 냉연강판 -3.8%, H형강 -11.5%, 기타도금강판 -30.1%, 선재 -39.1%
- 12월 수출은 글로벌 수요 증가와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단가 인상으로 전년동월비 48.9% 증가
 - 수출 물량은 전년 수준을 나타냈으나 석탄 등 원료 가격 인상과 주요국 전방산업의 호조로 인해 큰 폭의 수출액 증가세 지속
 - * 철강재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0년 12월) 877 → (2021년 12월) 1,263(44.0%)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중남미 120.9%, 인도 43.8%, 일본 34%, 아세안 28%
- 11월 수입은 전년의 기저효과, 수입단가 인상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월비 59.6% 증가
 - 가격요인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물량 측면에서는 후판, 강판, 선재가 국내 수요 급증 및 동남아시아 저가재 유입으로 증가하였고 냉연강판의 경우 국내 수요 부진으로 큰 폭 감소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9	13.3	12.0	2.7	2.4	0.7	-
	생산(전기비)	-	-	0.0	1.8	2.5	0.5	-5.3	1.3	-
	출하	-2.0	-6.1	2.2	17.7	5.4	-2.5	-0.4	-2.8	-
	재고	-0.3	-16.8	-19.3	-26.1	-5.6	-6.0	0.3	6.6	-
	가동률	-2.1	-6.0	-1.5	13.7	12.2	2.7	2.4	0.7	-
교역 동향	수출	-8.6	-14.5	7.5	50.4	45.2	41.6	48.5	45.7	48.9
	수입	-0.9	-24.7	3.3	40.5	113.1	91.6	76.1	59.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6) 정유

□ 글로벌 정제마진 회복으로 수출단가 상승폭 확대

- 11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4.0% 증가
 - 내수는 운송용 석유제품의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의 수요 확대로 8.5%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79.5%), 나프타(35.9%), LPG(-5.0%), 항공유(-5.1%), 휘발유(-9.8%), 경유(-12.9%), 병커C유(-18.8%), 아스팔트(-28.8%)
 - 수출 물량은 경유를 제외한 운송용 석유제품의 전반적인 수출 호조로 14.4%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108.3%), 항공유(67.6%), 휘발유(55.9%), 병커C유(53.3%), 경유(-7.2%), 나프타(-9.6%), 아스팔트(-22.0%), LPG(-46.3%)
- 12월 수출액은 단가 및 물량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79.2% 증가
 -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정제마진 회복으로 수출단가가 국제유가 상승폭을 상회하며 주요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0년 12월) 49.8 → (2021년 12월) 73.2(46.9%)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8.6	5.7	3.7	4.3	4.2	4.0	-
	생산(전기비)	-	-	-1.4	6.2	-0.8	-2.2	0.5	-0.4	-
	출하	-1.4	-7.3	-11.9	1.1	-0.1	1.5	5.9	1.2	-
	재고	-10.5	-8.6	-17.7	-9.9	5.2	5.2	6.4	14.9	-
	가동률	-2.3	-6.2	-8.7	5.6	3.8	4.8	4.3	4.3	-
	내수판매동향	-0.3	-5.8	0.3	5.0	9.6	11.1	12.2	8.5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16.6	112.6	71.6	84.8	147.6	123.9	79.2
	수입	-18.2	-26.1	-19.0	151.6	129.4	116.3	266.0	192.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0년 12월) 435.1 → (2021년 12월) 703.7(61.7%)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0년 12월) 21.5 → (2021년 12월) 38.5(79.2%)

- 수출 물량은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및 전방산업 회복으로 증가세 지속

- 지역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석유제품 관세 부과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

* 지역별 수출 증가율: 아세안(274.6%), 일본(52.8%), 중국(-31.4%)

(7) 석유화학

□ 전방산업 수요 확대와 높은 수출단가로 역대 12월 수출액 1위 기록

● 11월 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출하는 전년동월비 각각 7.0%, 9.7% 상승

- 11월 국제유가는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 주요 소비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하락

- 에틸렌은 원료인 납사 가격 약세, 마진 악화에 따른 일부 크래커 가동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운스트림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 국내 생산설비 가동률은 기초화학제품 수요 증가와 견조한 플라스틱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비 4.1% 상승
- 원료(에틸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LDPE, HDPE, PP 등의 주요 플라스틱 제품 가격은 천연가스 가격 강세에 따른 원료 생산 감소로 보합세 유지
- 12월 수출은 전방산업 경기 회복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전년 동월비 34.3% 증가
 - 12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73.0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비 46.5% 증가하였으며, 수출 단가도 39.8% 상승
 - ※ 석유화학 수출단가(달러/톤, 상승률): (2020년 12월) 1,029 → (2021년 12월) 1,439(+39.8%)
 - 중국, 미국, EU,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자동차 등의 전방산업에 필요한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중국 내 원자재 수급 차질, 전력난 등의 영향 지속으로 수출 회복세가 둔화하였지만, 수출단가 강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현지 공장가동률도 상승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	-3.0	2.8	15.7	7.5	2.2	2.0	7.0	-
	생산(전기비)	-	-	3.6	1.9	-0.9	-0.6	-2.2	-0.3	-
	출하	1.1	-2.9	2.8	10.6	1.8	-3.9	6.4	9.7	-
	재고	-0.4	-6.2	-11.2	3.2	25.1	25.2	17.6	17.0	-
	가동률	-4.4	-1.8	0.4	9.3	4.3	0.4	-1.6	4.1	-
교역 동향	수출	-14.8	-16.4	26.6	81.0	63.9	52.3	69.1	62.9	34.3
	수입	-12.8	-15.1	18.4	71.7	44.1	34.1	33.9	16.8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8) 섬유

□ 생산 증가세 지속,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

●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6.4% 증가, 전월비로는 4.1% 증가

- 수출 호조로 출하도 전년동월비 4.5%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가동률도 16.6% 상승했으며, 재고는 0.7% 감소
- 가동률 상승은 겨울 의류 수요 증가 및 스판덱스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증가에 기인
- 겨울 의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봉제의류 및 편조의류 생산 증가세는 유지
- 기타 섬유제품은 전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어 감소
 - * 화학섬유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7.0% → (10월) 5.1% → (11월) 4.4%
 - * 염색 가공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13.8% → (10월) 17.3% → (11월) 21.6%
 - * 봉제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1.1% → (10월) 8.3% → (11월) 7.8%
 - * 편조의류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12.9% → (10월) 6.9% → (11월) 9.4%
 - * 기타 섬유제품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20.5% → (10월) -15.1% → (11월) -8.0%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6	-14.8	-5.7	21.5	7.2	-3.8	3.8	6.4	-
	생산(전기비)	-	-	-1.1	15.1	2.4	-4.5	0.2	4.1	-
	출하	-4.9	-11.9	-4.6	19.4	8.4	1.3	-2.2	4.5	-
	재고	-0.4	-4.7	-12.6	-3.9	-1.4	-1.4	-0.3	-0.7	-
	가동률	-2.5	-12.4	-4.0	34.7	11.9	-0.8	8.7	16.6	-
교역 동향	수출	-8.0	-13.3	-8.3	46.0	9.9	13.0	13.9	14.2	11.1
	수입	-0.1	-5.3	9.1	16.6	3.6	9.1	9.9	12.4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11월 수출은 글로벌 의류 수요가 회복되고, 아세안과 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 특히 글로벌 주요국의 레깅스 등 홈웨어 수요 증가 영향으로 스판덱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섬유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2020년 12월) 11.1(2.8%) → (2021년 12월) 12.4(11.1%)
 - * 12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전년동월비): 아세안 3.7(12.1%), 중국 1.4(9.2%), 미국 1.2(5.3%)

(9) 가전

□ 선진국 수요 증가로 수출과 생산이 모두 증가

- 11월 생산은 전년동월비 3.7%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전환
 - 생산은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증가로 전환하였고, 특히 생활가전이 선진국의 연말 수출 수요를 기반으로 크게 증가
 - 수출 수요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 등에 대한 물류 차질과 관련 비용 증가로 출하는 감소
 - 재고는 물류 차질에 따른 출하 지연으로 9.5% 증가
 - 가동률은 생활가전과 영상음향기기 생산 호조로 상승세를 유지
- 12월 수출은 선진국 수요 증가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11.8% 증가
 - 최대 수출국인 대미국 수출이 대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일본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
 - * 12월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2020년) 23.1% → (2021년) 11.8%
 - 그러나 물류비용 증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유럽 수출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수출도 감소세
- 11월 수입은 아세안 주요 지역의 생산 차질 해소에 따른 역수입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3	3.1	8.5	5.8	-5.3	-10.7	-2.2	3.7	-
	생산(전기비)	-	-	4.3	-3.8	-2.0	3.1	-4.8	3.0	-
	출하	-4.3	1.4	3.8	2.1	-6.9	-13.0	-3.1	-7.4	-
	재고	-12.5	11.1	16.1	23.3	0.3	-0.6	-3.5	9.5	-
	가동률	-1.1	2.4	3.7	2.0	-6.7	-10.5	-1.5	6.8	-
교역 동향	수출	-3.6	0.5	16.1	66.5	11.7	-4.1	13.8	21.0	11.8
	수입	-0.1	6.3	39.4	24.1	12.8	13.3	2.1	16.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 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수입이 증가세를 회복하였고 인도네시아, 멕시코, 태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도 크게 증가
- 품목별로는 TV 역수입의 증가로 영상기기 수입이 대폭 증가세를 보였고 냉장고, 난방기기, 조명기기 등의 수입이 증가
- * 11월 수입 증가 주요 품목(전년동월비 증가율): 컬러TV 74.4%, 냉장고 18.2%, 스피커 18.3%, 난방 및 전열기기 부품 21.3%

(10) 무선통신기기

□ 수출 15개월 연속 증가, 생산과 출하 모두 증가세 유지

- 11월 생산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비 9.0% 증가하고, 출하 및 가동률 역시 각각 전년동월비 6.6% 및 20.1% 상승
- 가동률은 9월 이후 점진적 하락 추세이나, 휴대폰 및 부품 수출 증가세로 인해 10월에 이어 11월 전년동월비 20.1% 상승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1.3	28.7	41.7	18.7	12.3	9.1	9.0	-
	생산(전기비)	-	-	-	-	-	-5.0	-11.7	11.8	-
	출하	-7.7	-14.4	43.4	36.0	14.3	6.5	3.1	6.6	-
	재고	0.7	15.2	4.1	-7.5	-9.0	-9.0	9.0	16.3	-
	가동률	-3.6	-8.5	29.1	24.1	24.0	27.6	25.2	20.1	-
교역 동향	수출	-17.6	-6.4	21.5	38.5	2.6	19.6	15.5	16.5	4.8
	수입	9.6	-4.9	20.2	0.5	0.9	8.5	54.5	-3.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 11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포함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1.4%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로는 1.9% 증가

* 전월 대비 가입자 수 감소원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파악, 11월 휴대폰 서비스 전체 회선 수는 전년동월비 약 1.1% 감소

- 12월 수출은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소비 시장에서 폴더블폰을 비롯한 국산 스마트폰 매출 증가 및 스마트폰용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15개월 연속 증가

- 국내 기업의 폴더블폰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며, 2021년 3분기 북미 시장 38%, 유럽 시장 32.1% 점유율을 달성하며 각 시장에서 애플 및 샤오미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재탈환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8%를 기록, 이는 3분기 이후 대선진국 시장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한편, 개도국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품 단가 하락에 기인

* 대베트남 수출은 지역 봉쇄 및 부품 부족 등에 따른 생산 목표 하향 조정과 인도네시아로의 생산기지 일부 이전 계획 등으로 인해 감소

*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중저가 수출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

- 11월 수입은 무선교환기 및 증계기,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이 증가하였지만, 총액 기준으로 전년동월비 3.6% 감소
 - 품목별로 무선교환기 및 증계기가 32.4%, 휴대폰 부품이 16.2%, 무선수신기가 22.1% 증가

(11) 반도체

□ 수출 증가세 지속, 2021년 누적 수출액 최고 기록 경신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5.1% 증가한 127억 8,000만 달러, 1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
 - 2020년 7월 이후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 5월부터 12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5%, 34.4%, 39.6%, 43.0%, 28.2%, 28.8%, 40.1%, 35.1%로 매우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11월 반도체 생산과 출하는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각각 33.7% 및 30.1% 증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7	23.9	21.9	27.2	33.9	30.6	37.6	33.7	-
	생산(전기비)	-	-	16.9	-0.5	11.3	-1.6	-1.7	4.5	-
	출하	12.0	28.9	36.7	40.8	33.4	21.2	15.5	30.1	-
	재고	-9.6	9.0	4.3	-25.6	-2.7	-2.9	25.8	20.2	-
	가동률	-3.0	3.7	4.5	7.1	9.1	5.8	9.0	5.3	-
교역 동향	수출	-25.9	5.6	14.0	29.7	36.4	28.2	28.8	40.1	35.1
	수입	5.2	6.9	13.0	25.1	20.6	21.9	13.8	32.5	-

자료: 동계정,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폭이 예상과 달리 크지 않았고, 글로벌 수요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출하도 증가
- 11월 재고는 전년동월비 20.2% 증가하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재고 과잉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가동률은 5.3% 상승하여 생산은 안정적으로 증가세 유지
- 2021년 누적 수출액은 반도체 초황기였던 2018년의 1,267억 달러를 초과하여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
- 지난 여름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예상과는 달리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단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수출이 증가

(12) 디스플레이

□ 2021년 OLED 중심 수출 구조로의 전환으로 4년 만에 수출 증가로 전환

- 2021년 수출은 전년동기비 18.9%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증가로 전환
 - 고부가가치 패널인 OLED 중심으로 산업 구조 전환의 성공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패널 가격 상승으로 2021년 수출액 214억 달러 달성
 - OLED 수출 비중이 지속 상승하여 70%에 육박
 - *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2019년) 50.0 → (2020년) 60.6 → (2021년) 67.8
 - 스마트폰 OLED 중심으로 대아세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 지역별 수출액(억 달러): 아세안 119.7, 중국 75.8
- 11월 생산은 수요기업의 출하량 감소 결정으로 둔화
 - 생산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전년동월비 8.8% 감소하였으나, 모바일 OLED 수요 증가로 전월비 증가로 전환
 - 공급망 안정성 악화에 따라 수요제품 생산 차질로 재고가 전년동월비 18.1% 증가하였으며, 가동률은 전년동월비 5.2% 하락
-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0%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둔화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9월	10월	11월	12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3	-6.3	-4.6	1.7	-5.5	-9.8	-9.9	-8.8	-
	생산(전기비)	-	-	-7.1	-4.0	2.0	2.7	-5.1	8.1	-
	출하	-11.8	-8.8	-8.6	-4.2	-9.3	-13.2	-11.1	-11.8	-
	재고	-35.0	-9.2	-20.7	-17.1	-7.4	-9.7	5.2	18.1	-
	가동률	-6.1	-1.6	-4.7	3.2	-4.1	-7.7	-6.7	-5.2	-
교역 동향	수출	-17.0	-12.3	17.8	17.8	28.2	17.3	5.3	10.4	2.0
	수입	-9.6	-29.6	-32.7	-32.7	-32.8	9.6	10.5	66.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10월 및 11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2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LCD 수출은 가격 하락에 따른 출하량 조정으로 7.1% 감소로 전환
- OLED 수출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패널 수요 증가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6.2% 증가, 작년 9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
-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0년 12월) 54.8 → (2021년 12월 추정) 48.0
- TV: (2020년 12월) 0.6 → (2021년 12월 추정) 1.0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1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5.3% 증가

- 11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월비 2.0%, 전년동월비 5.3%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9월	10월*	11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10.8	110.0	110.5	111.8	114.6
상승률	2.3	1.4	-2.0	-2.0	5.7	3.9	3.6	5.5	5.3
전기비	-	-	-	0.9	1.7	0.9	1.5	-0.3	2.0
도·소매	1.5	-0.4	-2.6	-1.8	5.2	3.6	0.2	3.8	4.2
운수·창고	2.1	0.0	-14.2	-13.1	11.0	7.0	7.1	10.5	9.4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5	-1.5	11.3	7.4	14.3
정보통신	1.4	3.5	1.4	0.0	3.9	6.9	5.8	7.1	8.5
금융·보험	5.8	1.7	14.0	18.7	9.7	6.3	4.6	7.0	4.6
부동산	0.2	0.4	5.5	0.5	5.7	0.4	1.2	2.8	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4.2	0.2	0.3	1.7	3.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5.6	3.0	2.1	4.4	5.2
교육	0.1	-0.5	-4.7	-3.9	3.0	1.6	2.2	1.5	2.0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3.1	4.5	4.3	3.4	3.9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20.6	7.6	15.0	13.8	18.5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0.3	-0.6	-0.2	5.1	5.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6.1	3.4	-4.5	-4.8	0.5
지식서비스	3.2	3.1	3.9	4.7	5.5	4.5	3.8	4.6	4.4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4.4% 증가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5.3%)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매업(6.9%)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4.2% 증가
- 운수·창고업은 항공운송업(35.0%),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20.7%)의 실적 호조 지속과 수상운송업(4.2%)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월비 9.4% 증가

- 항공운송업은 2021년 3월 실적 개선 이후 큰 폭의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에도 항공여객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이 각각 전년동월비 73.1%, 20.8% 증가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15.1%), 음식점업(14.8%), 주점업(12.1%) 등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14.3%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 악화세가 지속되었던 주점업은 2020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폭 증가
- 정보통신업은 정보서비스업(18.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4%), 출판업(10.5%)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8.5% 증가
 - 정보서비스업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상승을 주도
 - 출판업은 2021년 5월 이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증가세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2.0%), 보험업(-0.9%)의 실적이 둔화되었지만 금융업(8.2%)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4.6% 증가
- 부동산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0.3%)의 실적 둔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1.0%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전문서비스업(-2.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1.5%)의 실적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연구개발업(13.5%)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3.2% 증가(전월비 11.6% 증가)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전월비 기준 22.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비는 2021년 8월(0.9%)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9월(-8.0%), 10월(-5.3%), 11월(-1.5%)과 같이 감소폭은 완화 추세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8.7%),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5.7%), 사업지원서비스업(4.0%) 등 모든 업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5.2% 증가

- 임대업(부동산 제외)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11.2%), 운송장비 임대업(18.5%)이 큰 폭의 증가세 주도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12.5%)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중이 높은 초등교육기관(1.0%), 중등교육기관(-1.2%), 고등교육기관(0.4%)의 실적 감소 및 둔화로 전년동월비 2.0%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5.8%), 병원(4.0%), 거주복지시설 운영업(3.5%)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3.9%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28.2%), 스포츠서비스업(18.0%),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7.7%), 창작, 예술 관련 서비스업(4.3%)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18.5% 증가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 까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3월(8.3%)부터 다시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은 기타 개인서비스업(6.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5.0%), 협회 및 단체(1.3%)의 실적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5.2% 증가

(2) 고용

□ 1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94만 8,000명(5.1%) 증가

- 1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는 보건·사회복지, 부동산, 정보통신, 운수·창고, 교육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94만 8,000명(5.1%) 증가

- 보건·사회복지업은 전년동월비 40만 2,000명(17.6%) 증가,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42.4%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9월	10월	11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9,270	19,449	19,494	19,514	19,557
증감률	0.4	1.7	-1.3	-2.2	2.6	2.8	3.2	2.3	5.1
전기비	-	-	-	-0.3	4.1	0.9	0.4	0.1	0.2
도·소매	-1.9	-1.6	-4.4	-5.1	-4.5	-4.0	-3.5	-3.9	-2.3
운수·창고	0.1	1.8	3.6	1.8	6.5	8.9	10.0	8.6	8.5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1.2	-0.1	1.4	-2.2	1.6
정보통신	7.0	2.8	-1.6	-2.1	4.9	8.7	12.6	11.0	10.8
금융·보험	5.8	-4.7	-2.7	-3.1	4.1	2.7	2.2	2.1	2.1
부동산	-2.2	5.3	-7.0	-12.4	2.7	6.5	7.3	9.9	1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6.1	5.0	4.7	5.2	6.4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5.6	4.6	1.6	1.7	3.1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7.6	4.0	-3.1	-6.6	4.9
교육	-3.2	2.0	-4.6	-5.5	2.4	3.2	5.4	5.3	6.4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9.6	10.5	12.0	12.6	17.6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6.2	-6.9	-3.9	-3.9	1.3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3.6	-3.7	-3.5	-4.7	-0.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1.9	13.0	12.2	4.3	4.3
지식서비스	2.6	3.6	0.2	-0.9	5.9	6.6	8.1	8.1	10.2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2021년 2월 이후 전년동월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월비는 2월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이며, 11월에는 2만 3,000명 감소

- 운수·창고(12만 9,000명, 8.5%), 교육(11만 3,000명, 6.4%), 정보통신(9만 2,000명, 10.8%), 전문·과학·기술서비스(7만 6,000명, 6.4%), 부동산(5만 9,000명, 12.0%) 등 대부분 업종도 전년동월비 증가

- 숙박·음식점업도 전년동월비 3만 2,000명(1.6%)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7만 7,000명(-2.3%) 감소하며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
- 그러나 전월비 기준 숙박·음식점업은 3만 7,000명 감소한 반면, 도·소매업은 전월비 1만 2,000명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69만 9,000명(10.2%) 증가(전월비 3만 1,000명 증가)
- 2021년 3월 전년동월비 증가세 전환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11월 10.2%는 2016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 증가율
- 공공 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89만 2,000명 증가(전월비로는 3만 9,000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 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6월) 37.9 → (7월) 38.0 → (8월) 42.0 → (9월) 63.6 → (10월) 51.7 → (11월) 89.2
- 전월비 민간 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6월) 7.5 → (7월) 4.2 → (8월) -2.5 → (9월) 7.9 → (10월) 1.5 → (11월) 3.9

(3) 서비스수지

□ 11월 서비스수지 1억 3,800만 달러 적자

- 11월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 감소, 기타사업서비스수지, 가공서비스수지, 여행수지의 적자 확대로 전월 6억 2,600만 달러 흑자에서 1억 3,800만 달러 적자로 전환(전월비 7억 6,400만 달러 감소)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대폭 감소로 전월비 5억 800만 달러 감소한 17억 900만 달러 흑자
- 해상운송수지는 전월 17억 7,700만 달러에서 11억 5,300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전월비 6억 1,8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운송수지 흑자 감소 주도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 및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 악화로 인해 전월 8억 5,000만 달러 적자에서 11억 8,200만 달러로 적자 규모 확대(전월비

3억 3,200만 달러 감소)

- 기술, 무역,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는 각각 전월비 2억 5,800만 달러, 7,600만 달러 적자 규모 증가

- 가공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전월 5억 1,100만 달러 적자에서 5억 6,900만 달러로 적자 규모 확대
- 여행수지는 여행지급의 확대로 전월 4억 4,600만 달러에서 4억 8,600만 달러로 적자 규모가 4,000만 달러 증가
 - 일반여행수입이 전월비 1억 2,0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유학연수지급, 일반여행지급이 각각 1,200만 달러, 1억 5,000만 달러 증가하여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9월	10월	11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1,498	892	-23	626	-138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425	-1,468	-456	-511	-569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208	-194	-122	-110	-88
운송	-2,508	-1,734	2,132	1,506	3,290	5,170	2,060	2,217	1,709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805	-1,567	-467	-446	-486
건설	9,719	6,776	4,770	1,445	887	774	214	321	342
보험	107	-256	-336	86	-84	-86	-17	33	44
금융	817	921	1,757	555	442	382	149	124	135
지식재산권 사용료	-2,063	-2,157	-3,034	-645	-984	-676	-577	-436	-326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1,142	1,102	272	248	234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795	-2,660	-1,091	-850	-1,182
개인·문화·여가	227	271	184	93	155	240	101	56	54
정부	-797	-905	-629	-169	-115	-124	-89	-20	-4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는 흑자 규모가 전월 2억 4,800만 달러에서 2억 3,400만 달러로 1,400만 달러 감소
 - 정보서비스수지는 전월비 2억 4,300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가 전월비 2억 5,700만 달러 감소하여 전체 수지의 흑자 규모는 소폭 감소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적자 규모가 전월 4억 3,600만 달러에서 3억 2,600만 달러로 감소(전월비 1억 900만 달러 증가)
 - 프랜차이즈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각각 전월비 1억 7,300만 달러, 1억 8,500만 달러 증가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폭 감소 주도
- 건설수지는 전월 3억 2,100만 달러 흑자에서 2,100만 달러 증가한 3억 4,200만 달러로 흑자 규모 소폭 확대
- 금융서비스수지는 전월비 1,100만 달러 증가한 1억 3,500만 달러 흑자
 - 명시적 수수료 및 기타 금융서비스 수입이 전월비 2,700만 달러 증가하고, 금융중개서비스지급이 1,600만 달러 감소하며 흑자 규모 소폭 증가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11월 전국 생산은 전년동월비 5.9% 증가
 - 전남(13.8%), 광주(12.6%), 경기(12.2%)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충남(-5.5%), 울산(-4.5%) 등은 감소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0.4	-0.4	0.0	4.4	12.7	5.1	9.9	-1.9	4.5	5.9
수도권	서울	-6.4	-15.3	-10.1	0.9	11.4	7.2	12.0	0.0	10.7	0.2
	인천	-5.3	-1.0	-1.4	3.4	16.0	6.5	12.2	-3.8	4.4	11.6
	경기	3.6	8.6	1.0	11.0	19.0	12.1	18.2	3.5	13.0	12.2
충청권	대전	10.1	-6.9	-4.0	3.8	12.7	-9.9	-14.7	-6.2	-0.2	-1.3
	세종	2.1	7.1	10.2	8.8	14.8	12.9	15.3	11.7	13.1	6.2
	충북	1.8	-5.2	2.2	7.6	19.3	10.5	17.5	1.0	12.3	7.9
	충남	-4.4	-2.4	0.1	-0.2	6.9	-0.5	0.3	-6.6	-4.7	-5.5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호남권	광주	-0.9	-0.2	7.6	7.9	25.5	-8.3	0.2	-13.8	-4.0	12.6
	전북	-6.1	-5.7	-4.7	2.6	12.3	3.7	12.1	-7.5	5.6	8.3
	전남	2.1	-0.8	-3.7	2.9	9.1	9.9	14.3	8.3	10.9	13.8
대경권	대구	0.0	-11.5	-6.3	1.1	28.4	6.9	13.9	-6.7	-0.3	7.9
	경북	-2.0	-5.9	-4.1	4.3	10.0	-2.5	-6.0	-7.0	0.4	3.0
동남권	부산	-1.8	-6.6	-9.6	-7.4	2.2	1.1	2.8	-0.2	9.2	6.2
	울산	1.3	-6.4	-3.6	4.6	9.4	-2.2	6.3	-11.6	-5.3	-4.5
	경남	1.6	-7.1	-5.8	-4.2	8.7	0.7	8.9	-7.9	0.6	2.5
강원권		0.6	-5.3	-5.1	-3.6	3.2	-1.3	9.1	-13.6	0.1	4.1
제주권		-2.6	-6.1	-1.6	3.7	10.2	4.9	5.9	-5.2	4.6	0.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11월 전국 취업자 수는 약 2,780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2.0% 증가
 - 경북(-0.5%), 경남(-0.2%), 광주(-0.1%)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경기(5.9%), 강원(3.7%), 충남(2.3%), 전남(2.3%)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6,952 (-1.6)	26,369 (-1.4)	27,467 (2.3)	27,645 (2.1)	27,603 (1.9)	27,683 (2.5)	27,741 (2.4)	27,795 (2.0)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4 (-1.5)	4,960 (-2.2)	5,081 (1.2)	5,077 (0.4)	5,053 (-0.6)	5,089 (1.4)	5,074 (0.5)	5,105 (0.1)
	인천	1,581 (0.4)	1,560 (-1.3)	1,556 (-2.0)	1,531 (-1.4)	1,575 (0.9)	1,575 (0.3)	1,578 (0.1)	1,581 (1.2)	1,579 (1.2)	1,591 (1.1)
	경기	6,952 (2.4)	6,909 (-0.6)	6,906 (-1.9)	6,850 (-0.9)	7,154 (3.5)	7,255 (5.1)	7,238 (5.1)	7,266 (5.3)	7,314 (5.7)	7,375 (5.9)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8 (0.4)	759 (-2.2)	787 (1.8)	797 (1.7)	801 (1.8)	797 (1.5)	795 (0.6)	803 (0.9)
	세종	168 (13.5)	180 (7.1)	182 (5.2)	180 (4.7)	188 (4.4)	189 (2.2)	188 (1.6)	190 (2.2)	188 (2.2)	185 (1.1)
	충북	880 (0.5)	890 (1.1)	887 (0.2)	859 (-1.3)	907 (0.6)	910 (1.0)	914 (1.9)	911 (1.4)	921 (3.5)	917 (1.9)
	충남	1,196 (1.4)	1,176 (-1.7)	1,182 (-1.7)	1,115 (-1.1)	1,217 (2.3)	1,231 (2.0)	1,228 (1.8)	1,234 (2.4)	1,239 (1.6)	1,219 (2.3)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8 (-1.4)	736 (-1.5)	752 (0.8)	751 (0.3)	751 (0.5)	749 (-0.3)	750 (0.1)	743 (-0.1)
	전북	928 (1.4)	932 (0.4)	947 (1.4)	923 (1.9)	962 (3.6)	970 (2.4)	969 (2.8)	970 (2.0)	972 (1.7)	970 (0.4)
	전남	974 (1.4)	974 (0.0)	975 (-1.4)	947 (-1.5)	995 (1.8)	1,001 (1.9)	1,000 (1.8)	1,010 (2.9)	1,017 (2.9)	1,008 (2.3)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06 (-1.0)	1,184 (1.3)	1,229 (5.7)	1,231 (2.6)	1,227 (2.1)	1,232 (2.2)	1,232 (2.3)	1,232 (1.3)
	경북	1,430 (0.2)	1,418 (-0.8)	1,422 (-1.9)	1,357 (-2.9)	1,417 (0.3)	1,439 (-0.1)	1,432 (-0.6)	1,447 (0.6)	1,450 (0.8)	1,437 (-0.5)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49 (-2.7)	1,618 (-2.0)	1,670 (3.4)	1,682 (2.4)	1,691 (2.8)	1,669 (1.5)	1,664 (0.8)	1,669 (0.4)
	울산	571 (-0.5)	560 (-1.9)	559 (-3.1)	549 (-2.7)	552 (-0.5)	558 (-0.9)	558 (-0.5)	563 (-0.4)	564 (0.7)	564 (0.4)
	경남	1,749 (0.2)	1,729 (-1.1)	1,722 (-2.3)	1,682 (-2.8)	1,762 (2.0)	1,759 (1.2)	1,753 (0.5)	1,760 (1.8)	1,755 (1.2)	1,743 (-0.2)
강원권		811 (2.8)	795 (-2.0)	786 (-3.2)	744 (-2.6)	832 (2.2)	841 (3.1)	841 (2.6)	837 (3.1)	841 (2.9)	843 (3.7)
제주권		382 (2.7)	378 (-1.0)	383 (-1.5)	375 (-1.3)	388 (4.6)	380 (0.5)	381 (0.5)	378 (-0.5)	386 (1.3)	393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2.0% 증가한 604억 달러를 기록
 - 수출 증가세가 11개월 연속 이어지며 연간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와중에 경남(115.8%)이 전월에 이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전국		-10.4	-5.5	4.1	12.6	42.1	26.4	34.8	16.7	24.1	32.0
수도권	서울	-11.2	-7.1	5.9	18.9	73.1	22.2	29.8	12.9	19.5	16.9
	인천	-6.8	-0.8	1.1	-1.0	27.8	29.9	45.7	20.1	42.9	33.7
	경기	-18.6	-1.3	6.7	15.5	27.1	17.0	24.6	8.4	15.8	24.2
충청권	대전	-10.3	24.0	28.6	3.2	12.6	-9.4	3.3	-18.4	-14.0	0.1
	세종	4.5	1.2	4.1	13.3	30.9	16.5	6.8	30.1	29.3	0.0
	충북	-5.0	12.6	27.7	24.2	19.3	20.5	21.7	11.2	4.2	1.5
	충남	-13.1	-0.5	10.4	13.1	42.6	39.5	42.9	30.8	26.6	36.1
호남권	광주	-8.5	2.7	17.0	17.6	49.4	-2.0	4.1	-14.6	0.1	10.9
	전북	-16.5	-10.6	2.7	17.9	59.4	33.1	50.0	11.0	38.1	33.9
	전남	-11.0	-16.9	-10.6	22.0	84.4	61.9	54.1	71.2	89.4	67.4
대경권	대구	-7.6	-16.4	-7.8	5.6	64.7	23.4	31.4	10.5	14.9	30.7
	경북	-7.8	-1.6	11.3	14.2	31.7	20.2	36.8	14.7	8.9	17.1
동남권	부산	-3.4	-18.7	-16.2	1.0	53.2	37.6	47.1	31.2	49.4	39.7
	울산	-0.9	-19.3	-13.1	5.8	66.4	31.4	42.0	11.4	39.1	28.9
	경남	-2.2	-8.8	7.6	5.4	20.0	19.9	37.2	10.7	4.0	115.8
강원권		-0.4	-3.1	11.0	34.7	47.5	38.8	40.3	30.5	49.4	10.0
제주권		-18.3	4.0	13.4	17.0	95.4	83.5	86.0	43.7	57.0	19.0

자료: 한국무역협회.

0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 서울: 생산 소폭 증가(0.2%), 고용 소폭 증가(0.1%), 수출 증가(16.9%)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8.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8%) 등의 생산이 증가 및 감소하여,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제조업(-0.9%) 소폭 감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3%)의 소폭 증가로 전체 고용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16.9%), 자동차부품(61.2%), 비누치약 및 화장품(4.2%)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인천: 생산 증가(11.6%), 고용 증가(1.1%), 수출 증가(33.7%)
 - 기타 기계 및 장비(18.3%) 등 생산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 제조업(0.9%)의 증가로, 농림·어업(-58.3%)의 감소에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33.7%), 비누치약 및 화장품(47.5%), 철강판(67.6%)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경기: 생산 증가(12.2%), 고용 증가(5.9%), 수출 증가(24.2%)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8.6%)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8.6%), 제조업(4.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의 전 부문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44.4%), 자동차(0.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0.2%)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20.2	-6.3	10.3	5.4	6.8	-0.1	9.6	8.5
		전자부품 외	-1.2	-17.0	-5.7	1.1	11.3	24.3	47.6	30.6	14.6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9.7	-0.8	15.3	1.0	9.0	-2.3	-2.4	12.9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11.3	20.1	52.8	20.0	11.4	12.6	16.5	1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8.5	-2.8	6.4	-26.6	-13.8	-40.9	-35.1	-2.3
		전자부품 외	-7.8	2.9	31.5	11.6	74.8	37.1	90.4	11.7	-10.5	5.9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7.6	22.3	22.4	25.4	29.5	20.0	33.4	28.6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0.3	22.4	23.4	-7.6	8.8	-25.7	-21.3	-9.8
		기계 및 장비	27.2	14.0	-16.5	-10.4	18.8	-16.3	-5.0	-30.9	-23.5	-20.6
고 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8 (0.0)	6 (0.0)	7 (-12.5)	3 (-62.5)	3 (-62.5)	4 (-50.0)	4 (-55.6)	4 (-42.9)
		제조업	449 (-0.2)	447 (-0.4)	443 (-0.4)	449 (0.4)	439 (-0.9)	438 (-3.5)	433 (-6.7)	435 (-3.3)	443 (0.5)	441 (-0.9)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604 (-1.5)	4,506 (-2.4)	4,636 (1.4)	4,636 (0.8)	4,617 (0.2)	4,651 (2.0)	4,628 (0.7)	4,661 (0.3)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12 (-29.4)	9 (-25.0)	12 (-20.0)	11 (-31.3)	12 (-25.0)	9 (-50.0)	7 (-56.3)	5 (-58.3)
		제조업	328 (-7.1)	324 (-1.2)	322 (-0.3)	311 (-3.7)	303 (-7.9)	314 (-3.1)	314 (-4.3)	311 (-2.8)	312 (-3.7)	325 (0.9)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21 (-2.2)	1,211 (-0.6)	1,260 (3.5)	1,249 (1.6)	1,251 (1.6)	1,260 (2.9)	1,259 (3.3)	1,260 (1.7)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98 (-16.2)	69 (-21.6)	122 (-2.4)	124 (5.1)	127 (11.4)	119 (0.0)	130 (6.6)	121 (18.6)
		제조업	1,259 (-4.7)	1,283 (1.9)	1,309 (1.8)	1,362 (5.8)	1,355 (7.1)	1,315 (3.5)	1,301 (2.6)	1,309 (1.6)	1,322 (1.5)	1,355 (4.1)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500 (-2.5)	5,419 (-2.1)	5,677 (2.8)	5,816 (5.5)	5,810 (5.5)	5,838 (6.3)	5,862 (6.7)	5,899 (6.0)
수 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15,303 (5.9)	16,355 (18.9)	17,759 (73.1)	17,129 (22.2)	5,528 (29.8)	5,851 (12.9)	5,761 (19.5)	5,913 (16.9)
	인천		38,018 (-6.8)	37,701 (-0.8)	9,947 (1.1)	10,053 (-1.0)	10,736 (27.8)	11,944 (29.9)	4,047 (45.7)	4,182 (20.1)	4,344 (42.9)	4,309 (33.7)
	경기		116,686 (-18.6)	115,157 (-1.3)	31,098 (6.7)	31,140 (15.5)	34,241 (27.1)	35,291 (17.0)	11,383 (24.6)	11,908 (8.4)	11,623 (15.8)	12,556 (24.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1.3%), 고용 증가(0.9%), 수출 소폭 증가(0.1%)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15.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7%)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2.0%)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25.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6%)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56.2%)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및 펌프(-28.9%), 자동차부품(-41.8%), 기호식품(-48.0%)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세종: 생산 증가(6.2%), 고용 증가(1.1%), 수출 보합(0.0%)
 -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4.2%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12.5%), 제조업(4.2%) 증가로 전체 고용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5.1%), 합성수지(38.1%)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원료(-33.0%), 플라스틱제품(-23.2)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은 보합
- 충북: 생산 증가(7.9%), 고용 증가(1.9%), 수출 증가(1.5%)
 - 지역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9.8%)이 감소하였으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37.1%), 식료품 제조업(14.2%) 등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13.2%), 제조업(0.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5%)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18.8%), 정밀화학원료(26.1%)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및 축전지(-11.2%), 플라스틱제품(-7.5%)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 충남: 생산 감소(-5.5%), 고용 증가(2.3%), 수출 증가(36.1%)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7%)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2.4%)의 감소폭이 확대되며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어업(5.1%), 제조업(3.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 전 부문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유지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중간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7.6	9.6	12.4	-26.0	-22.4	-31.7	-21.6	1.9
		기계 및 장비	18.5	-23.6	-15.3	17.3	25.6	16.8	30.8	13.0	11.3	-15.9
		화학제품 외	32.8	-4.7	4.9	14.7	-11.8	-22.2	-33.8	-6.3	-9.1	-19.7
	세종	총지수	2.1	7.1	10.2	8.8	14.8	12.9	15.3	11.7	13.1	6.2
	세종	전자부품 외	3.8	-14.2	-1.9	9.4	31.1	46.9	45.4	57.1	38.8	37.1
		식료품	13.3	5.3	4.7	4.6	6.2	2.3	6.1	-1.0	8.1	14.2
		화학제품 외	1.2	3.3	27.5	30.4	56.7	5.9	19.5	-29.3	0.2	-19.8
	세종	전자부품 외	-9.8	-9.5	5.7	-23.1	-10.0	-12.6	-12.0	-17.5	-25.4	-2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7.6	5.8	5.3	-22.3	-12.3	-27.9	2.2	-2.2
		화학제품 외	-3.0	-1.4	-3.5	4.4	12.9	19.3	23.7	15.9	2.9	9.7
고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7 (-30.0)	7 (-22.2)	8 (-11.1)	8 (14.3)	8 (14.3)	9 (12.5)	10 (25.0)	10 (25.0)
		제조업	102 (21.4)	105 (2.9)	100 (-8.3)	94 (-14.5)	93 (-12.3)	91 (-11.7)	92 (-12.4)	92 (-10.7)	87 (-13.9)	88 (-12.0)
		SOC·서비스	661 (-1.0)	667 (0.9)	680 (2.3)	656 (0.0)	685 (4.1)	697 (3.6)	700 (3.7)	696 (3.3)	697 (2.5)	705 (2.6)
	세종	농림·어업	8 (14.3)	8 (0.0)	7 (0.0)	6 (20.0)	11 (22.2)	11 (22.2)	11 (22.2)	11 (22.2)	11 (22.2)	9 (12.5)
		제조업	24 (0.0)	24 (0.0)	24 (4.3)	25 (4.2)	23 (0.0)	24 (0.0)	24 (0.0)	25 (8.7)	24 (4.3)	25 (4.2)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1 (5.6)	150 (4.9)	155 (4.7)	154 (0.7)	154 (0.7)	155 (0.6)	154 (2.0)	151 (-0.7)
	세종	농림·어업	89 (-1.1)	93 (4.5)	88 (-2.2)	79 (-3.7)	101 (0.0)	104 (3.0)	103 (4.0)	107 (7.0)	107 (9.2)	103 (13.2)
		제조업	190 (4.4)	201 (5.8)	209 (10.0)	216 (11.9)	213 (8.7)	207 (1.0)	207 (1.0)	208 (-1.0)	207 (-0.5)	210 (0.5)
		SOC·서비스	601 (0.0)	596 (-0.8)	589 (-2.5)	563 (-5.2)	592 (-2.1)	599 (0.5)	603 (1.7)	596 (1.2)	606 (3.9)	603 (0.5)
	세종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68 (9.1)	126 (3.3)	197 (9.4)	206 (15.1)	205 (17.8)	206 (10.8)	208 (8.9)	186 (5.1)
		제조업	270 (0.0)	250 (-7.4)	252 (-5.6)	255 (-2.3)	259 (4.0)	250 (5.0)	252 (5.9)	247 (4.2)	255 (2.4)	262 (3.6)
		SOC·서비스	783 (1.8)	764 (-2.4)	762 (-2.4)	735 (-1.3)	760 (-0.1)	775 (-1.9)	770 (-3.0)	782 (0.0)	776 (-0.6)	771 (1.2)
수출	대전		4,048 (-10.3)	5,018 (24.0)	1,366 (28.6)	1,279 (3.2)	1,174 (12.6)	1,241 (-9.4)	421 (3.3)	406 (-18.4)	403 (-14.0)	428 (0.1)
	세종		1,285 (4.5)	1,300 (1.2)	372 (4.1)	362 (13.3)	361 (30.9)	388 (16.5)	117 (6.8)	139 (30.1)	144 (29.3)	137 (0.0)
	충북		22,080 (-5.0)	24,870 (12.6)	7,134 (27.7)	7,220 (24.2)	6,717 (19.3)	7,582 (20.5)	2,420 (21.7)	2,555 (11.2)	2,237 (4.2)	2,301 (1.5)
	충남		79,951 (-13.1)	79,572 (-0.5)	22,475 (10.4)	22,078 (13.1)	24,758 (42.6)	28,193 (39.5)	9,408 (42.9)	10,059 (30.8)	8,983 (26.6)	9,966 (36.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주력 수출품 중 반도체(39.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1.0%), 컴퓨터(105.5%), 석유제품(109.3%)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확대

(3) 호남권

- 광주: 생산 증가(12.6%), 고용 소폭 감소(-0.1%), 수출 증가(10.9%)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7.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7.0%), 기타 기계 및 장비(7.1%)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로 전환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13.3%), 제조업(-4.8%)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6.8%), 냉장고(7.1%)는 증가하여, 자동차(-13.8%)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
- 전북: 생산 증가(8.3%), 고용 소폭 증가(0.4%), 수출 증가(33.9%)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3%)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20.5%), 식료품 제조업(14.8%) 등의 생산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농림·어업(-8.8)의 감소와 제조업(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합성수지(32.8%), 동제품(21.9%), 정밀화학원료(22.9%), 자동차(22.7%) 등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세
- 전남: 생산 증가(13.8%), 고용 증가(2.3%), 수출 증가(67.4%)
 - 1차 금속 제조업(-3.6%)은 감소했으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37.8%), 석유정제품(28.3%) 등의 상승으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6.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2.0%)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111.6%), 합성수지(44.4%), 철강판(42.9%), 기초유분(305.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1.2	5.6	27.0	-14.9	4.4	-30.7	-19.7	17.0
		전기장비	1.0	8.7	15.5	27.1	41.7	-2.3	-7.0	-12.9	8.4	7.0
		기계 및 장비	8.0	-11.2	-6.6	-7.1	27.4	-9.0	1.0	4.1	4.6	7.1
	전 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12.8	11.5	6.4	-0.6	14.2	-9.5	6.5	20.5
		화학제품 외	-11.0	-11.1	-6.9	-3.2	26.6	-5.1	-0.1	-17.2	-8.9	-12.3
		식료품 제조업	5.6	-0.6	-5.0	-1.7	0.0	-3.3	3.0	-7.3	5.8	14.8
	전 남	화학제품 외	2.2	-2.8	-11.7	3.3	13.4	12.8	17.2	10.8	16.3	37.8
		1차 금속 제조업	-0.9	-8.1	-3.0	3.7	24.2	6.4	3.0	5.1	0.6	-3.6
		석유정제품	-2.9	-3.7	-9.1	0.6	14.6	20.7	24.4	19.7	28.5	28.3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5 (-16.7)	12 (-25.0)	13 (-18.8)	12 (-25.0)	11 (-31.3)	12 (-20.0)	13 (-23.5)	13 (-13.3)
		제조업	110 (-0.9)	107 (-2.7)	105 (-4.5)	103 (-5.5)	100 (-6.5)	96 (-10.3)	93 (-13.1)	96 (-10.3)	100 (-5.7)	99 (-4.8)
		SOC·서비스	626 (-0.2)	625 (-0.2)	628 (-0.5)	620 (-0.2)	639 (2.6)	644 (2.9)	647 (3.7)	640 (1.7)	638 (1.8)	630 (1.0)
	전 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76 (2.3)	160 (1.3)	179 (-5.3)	172 (-9.9)	170 (-10.5)	174 (-7.9)	174 (-7.0)	165 (-8.8)
		제조업	123 (0.0)	123 (0.0)	119 (-3.3)	122 (-3.2)	118 (-6.3)	116 (-3.3)	115 (-3.4)	120 (1.7)	123 (7.0)	123 (1.7)
		SOC·서비스	635 (0.0)	630 (-0.8)	650 (1.9)	638 (2.7)	664 (8.3)	681 (7.4)	684 (8.2)	676 (5.1)	675 (3.4)	682 (2.7)
	전 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18 (19.8)	205 (14.5)	221 (6.3)	229 (6.5)	227 (5.6)	232 (7.9)	234 (4.9)	234 (6.4)
		제조업	104 (1.0)	106 (1.9)	101 (-3.8)	94 (-10.5)	97 (-10.2)	98 (-12.5)	99 (-12.4)	98 (-10.1)	97 (-6.7)	99 (-2.0)
		SOC·서비스	678 (2.4)	662 (-2.4)	657 (-6.4)	648 (-4.3)	677 (2.4)	674 (3.1)	673 (2.9)	680 (3.5)	685 (3.8)	674 (1.5)
수 출	광주	13,415 (-8.5)	13,772 (2.7)	3,820 (17.0)	3,917 (17.6)	4,067 (49.4)	3,821 (-2.0)	1,206 (4.1)	1,214 (-14.6)	1,327 (0.1)	1,404 (10.9)	
	전북	6,537 (-16.5)	5,842 (-10.6)	1,621 (2.7)	1,756 (17.9)	2,001 (59.4)	1,965 (33.1)	631 (50.0)	638 (11.0)	701 (38.1)	708 (33.9)	
	전남	32,587 (-11.0)	27,092 (-16.9)	7,092 (-10.6)	8,966 (22.0)	10,135 (84.4)	11,585 (61.9)	3,907 (54.1)	3,693 (71.2)	4,166 (89.4)	3,747 (67.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증가(7.9%), 고용 증가(1.3%), 수출 증가(30.7%)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6.2%)는 감소세이나, 금속가공제품(15.4%), 기타 기계 및 장비(30.6%) 등의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로 전환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 산	대 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4.2	12.1	57.5	4.9	19.6	-13.8	-10.3	-6.2
		금속가공제품	-1.5	-13.4	-16.3	-10.5	28.1	8.1	15.0	-5.6	2.9	15.4
		기계 및 장비	10.2	-16.9	-21.7	0.8	27.1	18.4	19.8	11.4	22.7	30.6
	경 북	전자부품 외	-7.2	-11.4	-23.7	14.1	4.2	-9.2	-27.8	-3.1	23.1	27.2
		1차 금속	-7.8	-2.8	4.2	-1.5	8.3	1.3	4.1	-5.5	-11.8	-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6.4	12.9	33.8	-0.6	11.6	-18.7	-11.4	-9.7
고 용	대 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27 (-22.9)	21 (-36.4)	16 (-51.5)	11 (-64.5)	10 (-67.7)	11 (-62.1)	12 (-55.6)	11 (-57.7)
		제조업	249 (-1.6)	231 (-7.2)	231 (-8.0)	236 (0.0)	246 (7.4)	241 (6.2)	241 (6.2)	239 (5.8)	231 (0.9)	237 (2.2)
		SOC·서비스	936 (-0.6)	923 (-1.4)	948 (1.7)	927 (3.0)	967 (7.3)	979 (3.9)	975 (3.4)	983 (3.5)	990 (4.4)	984 (2.7)
	경 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83 (16.0)	248 (13.8)	285 (9.2)	293 (1.7)	293 (1.4)	293 (0.7)	295 (1.4)	274 (-5.2)
		제조업	299 (5.3)	292 (-2.3)	277 (-11.8)	278 (-9.2)	277 (-6.7)	281 (-2.1)	280 (-3.1)	284 (0.0)	288 (1.4)	296 (7.6)
		SOC·서비스	879 (-3.0)	863 (-1.8)	862 (-3.1)	830 (-4.7)	854 (0.0)	864 (-0.1)	858 (-0.5)	870 (0.9)	866 (0.5)	866 (-1.5)
수 출	대구		7,491 (-7.6)	6,265 (-16.4)	1,775 (-7.8)	1,857 (5.6)	1,950 (64.7)	1,910 (23.4)	576 (31.4)	632 (10.5)	658 (14.9)	747 (30.7)
	경북		37,712 (-7.8)	37,096 (-1.6)	11,005 (11.3)	10,307 (14.2)	10,308 (31.7)	11,109 (20.2)	3,760 (36.8)	3,831 (14.7)	3,945 (8.9)	4,240 (17.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농림·어업(-57.7%)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7%)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전통적인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384.5%) 대폭 증가, 자동차부품(5.8%), 농기계(123.0%), 기구부품(33.9.2%), 인조장섬유직물(46.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확대
- 경북: 생산 증가(3.0%), 고용 감소(-0.5%), 수출 증가(17.1%)
 - 주요 업종인 1차 금속 제조업(-8.0%), 자동차 및 트레일러(-9.7%)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7.2%)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제조업(7.6%)이 증가했으나 농림·어업(-5.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5%)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로 전환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11.8%), 철강판(37.0%), 반도체(44.0%) 등의 증가로, 광학기기(-28.2%)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출 증가폭 확대

(5) 동남권

- 부산: 생산 증가(6.2%), 고용 소폭 증가(0.4%), 수출 증가(39.7%)
 - 주요 업종인 기타 기계 및 장비(30.2%), 자동차 및 트레일러(33.0%) 등이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44.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6%)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7.3%)은 감소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침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1,014.5%), 철강판(72.9%), 철강관 및 철강선(30.3%)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감소(-4.5%), 고용 증가(0.4%), 수출 증가(28.9%)
 - 대표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8.1%), 석유정제품(1.8%)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10.8%)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9%)이 증가세이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0%)이 보합으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6.4	-3.6	-23.1	-17.3	-8.4	5.8	-7.9	17.8	27.0	3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26.5	-11.1	14.2	1.5	7.2	-2.4	45.3	33.0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1.3	-9.9	-5.3	4.3	12.1	1.6	7.4	-1.2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1.2	20.1	22.0	-7.6	18.1	-25.8	-13.8	-10.8
		화학제품 외	0.3	-2.8	-0.2	2.1	8.7	9.7	8.8	8.7	0.0	8.1
		석유정제품	-3.1	-6.1	-7.6	-12.4	-4.5	0.0	0.5	2.5	4.8	1.8
	경 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27.6	-33.9	-24.6	-20.2	-15.3	-21.2	-6.0	-1.5
		기계 및 장비	-6.9	-9.8	-2.0	-1.2	15.0	10.7	30.4	-0.5	14.6	8.3
		금속가공제품	-16.0	-1.7	-1.8	-6.2	-9.7	-8.1	0.2	-10.0	-11.9	-10.3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30.0)	7 (0.0)	8 (0.0)	8 (0.0)	10 (42.9)	12 (71.4)	12 (71.4)	11 (57.1)	12 (50.0)	13 (44.4)
		제조업	284 (-0.7)	255 (-10.2)	250 (-5.3)	252 (-3.4)	244 (-5.4)	237 (-5.6)	239 (-4.4)	234 (-5.3)	229 (-8.4)	229 (-7.3)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391 (-2.2)	1,358 (-1.8)	1,417 (4.9)	1,433 (3.4)	1,440 (3.7)	1,424 (2.4)	1,423 (2.2)	1,428 (1.6)
	울 산	농림·어업	6 (0.0)	7 (16.7)	7 (0.0)	6 (-14.3)	6 (-14.3)	7 (0.0)	8 (33.3)	8 (14.3)	6 (-14.3)	5 (-28.6)
		제조업	176 (-4.9)	162 (-8.0)	160 (-5.9)	166 (-1.2)	162 (1.3)	163 (2.5)	164 (3.8)	162 (2.5)	164 (3.1)	162 (1.9)
		SOC·서비스	389 (1.6)	392 (0.8)	392 (-2.0)	377 (-3.3)	384 (-1.3)	389 (-2.0)	386 (-2.8)	393 (-1.8)	394 (0.0)	397 (0.0)
	경 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181 (0.6)	173 (-1.7)	207 (8.4)	225 (19.7)	228 (21.3)	226 (22.2)	227 (16.4)	211 (16.6)
		제조업	396 (-5.3)	399 (0.8)	382 (-5.7)	381 (-7.1)	380 (-6.6)	370 (-7.0)	365 (-9.4)	370 (-4.1)	368 (-1.1)	378 (-3.3)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9 (-1.4)	1,128 (-1.1)	1,175 (4.3)	1,164 (1.0)	1,161 (0.7)	1,164 (0.5)	1,160 (-0.7)	1,154 (-1.8)
수 출	부산		13,924 (-3.4)	11,320 (-18.7)	3,028 (-16.2)	3,327 (8.7)	3,917 (59.5)	3,819 (37.6)	1,190 (47.1)	1,326 (31.2)	1,314 (49.4)	1,448 (39.7)
	울산		69,530 (-0.9)	56,091 (-19.3)	15,083 (-13.1)	16,520 (5.4)	18,732 (65.7)	18,432 (31.4)	5,584 (42.0)	6,113 (11.4)	6,579 (39.1)	6,509 (28.9)
	경남		39,353 (-2.2)	35,893 (-8.8)	10,139 (7.6)	10,792 (5.6)	9,261 (20.1)	9,389 (19.9)	2,750 (37.2)	3,110 (10.7)	3,195 (4.0)	5,743 (115.8)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 상위 수출품인 자동차(-4.1%)는 감소세이나, 석유제품(148.2%), 합성수지(57.3%), 동제품(58.6%)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경남: 생산 증가(2.5%), 고용 소폭 감소(-0.2%), 수출 증가(115.8%)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1.5%), 금속가공제품(-10.3%)의 감소폭 축소와 기타 기계 및 장비(8.3%)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3.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 부문의 감소세로 인하여 전체 고용이 소폭 감소

-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부품(-9.6%)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564.5%), 냉장고(98.0%) 등의 대폭 상승으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이 대폭 확대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증가(4.1%), 고용 증가(3.7%), 수출 증가(10.0%)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7.0%)은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제조업(26.5%) 증가세, 음료 제조업(3.7%)이 증가 전환되면서, 지역 전체 생산 증가로 전환

- 농림·어업(6.8%) 제조업(5.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4%) 모든 부문의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전자응용기기(32.1%), 합금철선철 및 고철(123.2%) 등의 증가폭 감소와 전력용 기기(-14.8%)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이 감소

● 제주: 생산 소폭 증가(0.3%), 고용 증가(0.5%), 수출 증가(19.0%)

- 주요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6.2%)은 증가했으나, 음료 제조업(-9.1%) 감소세, 식료품 제조업(-12.6%) 감소로 전환되면서 지역 전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제조업(21.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3%)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92.9%), 어류(36.9%), 갑각류(379.9%), 기호식품(165.5%)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감소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 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2.4	-4.2	-4.8	4.3	22.8	-9.7	-6.6	-7.0
		식료품	5.1	-2.0	3.6	2.3	0.3	-8.0	11.9	-26.3	11.4	26.5
		음료	7.9	-4.2	-14.9	-5.6	-12.0	-8.8	-5.9	-13.5	-12.9	3.7
	제 주	음료	5.4	-0.7	33.2	23.4	-12.6	4.0	17.8	-9.8	-11.7	-9.1
		식료품	-6.3	-2.5	-5.8	-15.1	-1.4	-8.7	7.5	-13.8	3.0	-12.6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17.0	-6.8	66.6	-16.2	-19.2	-6.3	2.3	6.2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67 (-25.6)	46 (-27.0)	75 (-27.2)	82 (-14.6)	82 (-14.6)	81 (-12.9)	82 (-7.9)	78 (6.8)
		제조업	56 (7.7)	57 (1.8)	54 (-10.0)	55 (-11.3)	54 (-3.6)	55 (0.0)	55 (-1.8)	56 (1.8)	55 (3.8)	57 (5.6)
		SOC·서비스	658 (2.3)	649 (-1.4)	658 (0.3)	636 (0.5)	697 (7.6)	697 (5.8)	696 (4.8)	692 (5.0)	696 (4.0)	701 (3.4)
	제 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75 (5.6)	71 (-4.1)	68 (-9.3)	62 (-15.1)	62 (-12.7)	61 (-16.4)	65 (-14.5)	69 (-6.8)
		제조업	12 (0.0)	12 (0.0)	14 (16.7)	13 (8.3)	14 (27.3)	15 (25.0)	15 (25.0)	15 (7.1)	16 (14.3)	17 (21.4)
		SOC·서비스	303 (0.7)	292 (-3.6)	295 (-3.6)	292 (-0.7)	306 (7.7)	302 (3.1)	304 (2.7)	303 (3.1)	305 (5.2)	307 (1.3)
수 출	강원	2,088 (-0.4)	2,023 (-3.1)	592 (11.0)	631 (34.7)	658 (47.5)	717 (38.8)	217 (40.3)	249 (30.5)	261 (49.4)	234 (10.0)	
	제주	149 (-18.3)	155 (4.0)	54 (13.4)	45 (16.9)	59 (92.7)	58 (83.5)	20 (86.0)	19 (43.7)	19 (57.0)	23 (19.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 실적.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와 대응방안

1. 머리말

- 최근 들어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의 성과를 중시하는 ESG 경영이념이 확산
 - ESG 가치 준수 여부가 기업의 투자, 신용도, 자금조달 등의 경영성과 전반에도 큰 영향
- 방위산업 역시 무기 생산에 따른 ESG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설 필요
 - 국내 주요 기업 역시 내부 이사회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조를 강화하는 등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ESG 리스크는 크게 2가지로 분류
 - 기업 리스크: ①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ESG 평가 결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② 해외 연기금들의 투자기피로 인한 주가 저평가와 이에 따른 시장 리스크
 - 수출금융 리스크: ESG 리스크를 의식한 금융기관들의 수출 금융지원* 축소로 인한 방산 수출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수출경쟁력 저하
 - * 수출대상국의 수요자 금융 요청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2.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ESG 투자 규모는 55% 증가
 - 지역별 ESG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506%), 캐나다(123%), 미국(96%), 아시아·대양주(76%) 등 유럽(-0.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가파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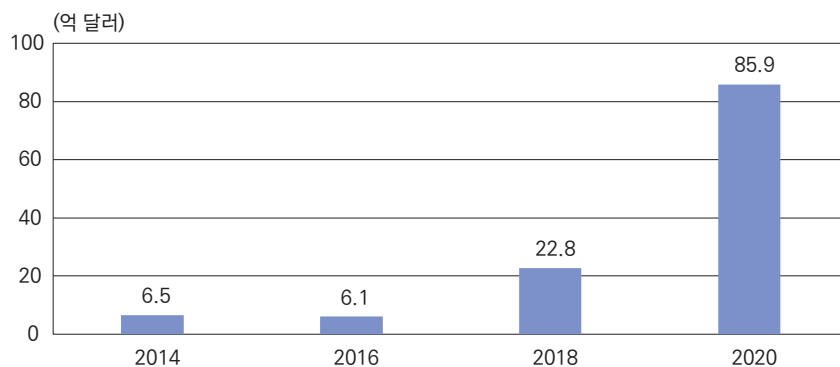
지역별 ESG 투자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2016	2018	2020	증가율 (2016~2020)
유럽	12,040	14,075	12,017	-0.2
미국	8,723	11,995	17,081	95.8
캐나다	1,086	1,699	2,423	123.1
아시아·대양주	516	734	906	75.6
일본	474	2,180	2,874	506.3
전 세계	22,839	30,683	35,301	54.6

자료: GSIA(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국민연금의 ESG 투자 추이



자료: GSIA(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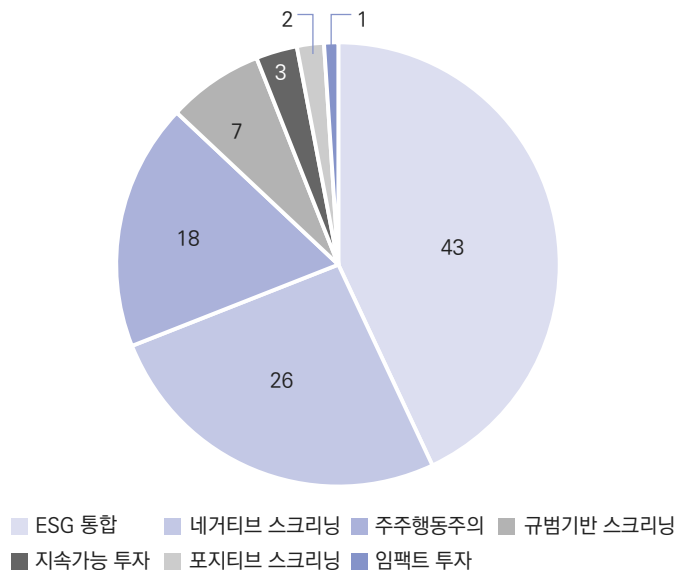
* 유럽은 최근 ESG 투자의 정의가 변경되고 기존의 투자 상품 중 일부가 통계에서 제외되면서 규모가 축소

- 한국 역시 2020년 기준 국민연금의 ESG 투자 규모가 약 85억 9,0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13.2배 증가

- ESG 투자가 확산되면서 주요 해외 연기금이나 투자펀드 등이 집속탄, 대인지뢰, 생화학 무기, 핵무기 등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하는 사례가 증가
 - ESG 가치에 위배되는 산업이나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이 전 세계 ESG 투자에서 26% 차지하며, 국내 방산기업 다수가 투자배제 대상에 포함
- ESG 리스크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산기업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 또한 우려
 - 평가체계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낮은 까닭에 평가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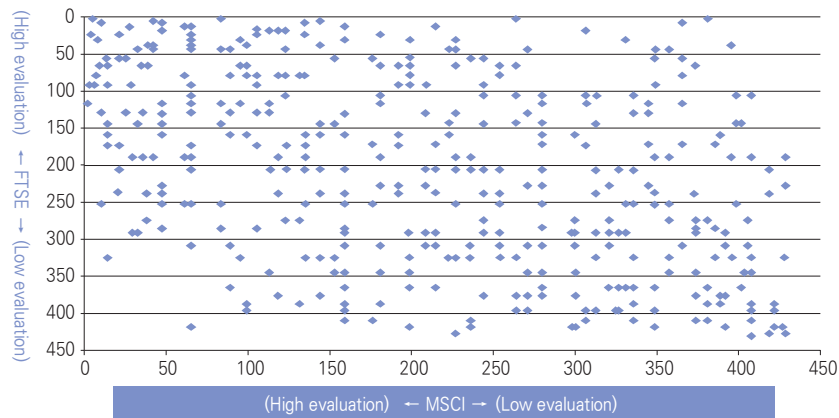
ESG 투자방식별 비중

단위: %



자료: GSIA(2021),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FTSE 지수와 MSCI 지수의 상관관계



자료: Government Investment Pension Fund,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1) FTSE와 MSCI 모두 ESG를 평가한 430개 일본 회사를 대상.

2) 도표 위의 점들은 각 회사의 ESG 평가순위를 의미.

- 대표적인 ESG 평가지표인 FTSE ESG 지수와 MSCI ESG 지수 사이에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부재
 - 평가기관마다 ESG 평가결과가 상이하여 동일한 기업도 평가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
- 특히 한국과 같이 특정 업종에 대한 ESG 평가가 체계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수출제품의 특성과 수출대상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재한 상태에서 수출금융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우려
 - 따라서 방산수출에 대한 자체적인 ESG 평가기준의 마련이 시급

3. 국내외 주요 대응 사례

- 최근에는 선진국의 민간은행들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자체적인 금융지원 기준을 마련
 -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투자은행 Societe Generale은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방산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제공

* 무기·장비, 거래 당사자, 거래 유형, 거래 국가 등 4가지 유형의 평가를 통해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

* 공격용 살상무기 수출, 테러 단체 및 UN 무기거래 제재국 대상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 글로벌 항공·방산기업 또한 기후변화, 인권 문제 등에 적극 대응 중

- (항공) 항공기 엔진의 탄소배출량 2% 감축목표 제시, 지속가능항공연료(SAF) 활용
- (방산) 지속 가능한 기술 중심의 군 현대화 추진: 연료 효율성 강화, 탄소배출 감축

● 국내 방산기업들 또한 제품 다각화를 통해 ESG 이슈에 대응 중이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등급(S~D)평가 결과, 국내 방산기업 다수가 상위 등급에 포진

- LIG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 한화그룹: 시제품 DX화, 집속탄 사업 매각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구경 탄환 확산 범위 축소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ESG 평가 등급

등급	주요 기업	주요 사례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 넥스원, 한국조선해양, 대한항공,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HSD엔진 등	- 한화: 집속탄 사업 매각, 시제품 DX화 - LIG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ESG위원회 신설
B+	풍산, 현대로템, 대우조선해양, STX엔진, 한국카본 등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구경 탄약의 확산 범위 축소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2020년 기준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108개사로 전체의 14.2%를 차지.

4.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 대응방안

- 먼저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ESG 평가방식으로 방위산업이 상시적인 저평가를 받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방위산업의 경우 기업 외에도 생산하는 제품과 거래상대방 또한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

- 이와 같은 ESG 평가기준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는 평가체계는 방위사업청의 무기 수출 승인·허가 절차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표화하는 방안을 고려
 - 방위사업청은 무기 수출의 승인·허가 단계부터 수출 품목, 최종 사용자, 국제평화 및 안전 실현 여부, UN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인권 침해 유무 등에 대해 판단

국내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항목	세부내용
심사기준	- 국제평화 및 안전, 국가안보 저해 및 군사·외교적 민감성 - 수입국의 기술수준 및 품목·기술의 유출 가능성 - 수입자, 최종 수하인, 최종 사용자 및 사용목적의 신뢰여부 - UN 등 국제체제에서의 제재대상 여부 등
제출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약서 등 - 최종 사용자 증명서 -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자료 - 기타(E/L 허가서, 기술이전계약서, 국내외 파급효과 등)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 또한,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는 개별 기업이나 부처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관계로 기업과 범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
 - 특히 방산수출사업에서 ESG 리스크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높아, 기업-정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증대
- 따라서 방위산업의 ESG 이슈 대응에서 수출금융지원 협의회의 역할 확대를 고려
 - 수출금융지원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확대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ESG 이슈 대응 역량을 제고
 - 수출금융지원 협의회 주도로 각 수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case by case inspection)를 통해 해당 사업의 ESG 평가기준 충족 여부 판단 및 ESG 기준 위배 가능성을 판단
- 마지막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방산수출 금융지원에 따른 ESG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
 - 일례로 정부 경영평가에서 수출금융기관의 방산 수출금융 지원 실적이 ESG 평가지표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